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경희한의원

감기 / 성장 / 관절통 / 교통사고

월~토 월 425-818-8248, 11418 NE 19th St (OL 병원 위)
예약필수 린우드 425-640-7585, 3333 184th St SW (H Mart 옆)

JP INSURANCE 박정연보험

자동차, 사업체 보험, 메디케어

Tacoma 253-228-5295

Federal Way 253-335-3895



주 패밀리 클리닉

- 소아진료
- 부인진료
- 보톡스·필러
- 성인진료
- 노인진료

Open Hours
 Mon: 9am-6pm
 Tue-Fri: 8am-6pm
 Sat: 8am-1pm

425.409.9247 kk@joofamilyclinic.com
www.joofamilyclinic.com
 22618 Hwy 99, #106 Edmonds, WA 98026 (부한플라자)

THE ONE LOGIS, theoneologisllc.com

하나통운

후회없는 선택, 꼭 비교해 보세요!



워싱턴주 최대 한인운송업체 / 한인이사인력 운영
 • 택배 · 이사 · 수출입운송 · 창고보관 · 자체 통관사 운영
253-872-8181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GOOD DR. CHIROPRACTIC

교통사고 · 디스크 · 만성요통 · 스포츠 상해 · 족관증

두통 · 척추 관절 교정 및 전신 통증 치료전문

예약 전화 :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Lynnwood, WA 98036

새해에는

김성교

새해에는 외로워지자

아무것도 못 보는 눈으로 사느니

혼자가 되자

양심을 꺼내

하늘 한 번 똑바로 올려다보자

쳇지피티에 물기만 하면

대명천지의 세상이 보이는데

그림자는 오히려 더 짙어진다

누가 설계자인지

천만영화 속에서 뛰쳐나온 빌런이

맑은 유리처럼 선명해서

더 절망이다

'아무나면 어때'와
 '내 일이 아니지'란 무관심 때문에
 아무나가 세상을 조종한다
 배부른 자리에서
 괴물이 업데이트된다

폭탄이 폭죽처럼 터지는 오늘이
 지금까진 영화였다고
 누가 거짓말을 해주기를,
 말 좀 하려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이 돌아오기도

현 해와 새 해의 교대식이 열린다
 차라리 외로워지자
 쓰나미 같은 세상을 잠시 멈추고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자

새 노트 첫장에
 민주주의라고 쓰자

세계는 침묵하는 사람들의 입만큼
 더 캄캄해진다

K-beauty
 FIND YOUR BEAUTY

화이트 태닝 Red Light Therapy
 피부에 조명을 켜다!!

페더럴웨이점 206-670-8654
린우드점 425-561-7866

몽골 직수입 최고급 순모
 특상급 명품 쌍봉낙타 순모

SLEEPING CAMEL



Premier Wool

VVIP 고객들의 재구매율 1위 제품

타코마: 253.227.8586

페더럴웨이: 253.232.9277

린우드: 206.670.8654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

로컬뉴스, 미주뉴스, 한국뉴스, 전문가칼럼,
 벼룩시장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haninsosik.com을 방문하시면
 전자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전문

등록기간

10월15일~12월7일

✓ Medicare

✓ Medicaid

✓ Tricare care for
life specialist

✓ ACA(오바마케어)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친절한 김양미 보험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더 잘 맞는 플랜이 있는지 상담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로 예약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다년간 의료
통역 경력**

**206-679-8301**

getcare8282@gmail.com

미디어한국 전자신문 및 뉴스레터 구독 신청 및 문의

ads@mhankook.com



살때도, 팔때도!



권미경 부동산 253.335.5301

Managing Broker MiMi Kwon E: mimibestchoice@gmail.com



www.homesnap.com/Mikyoung-Kwon



권미경부동산



Facebook: Mimi Kwon



Instagram: Mimikwon

Federal Way

\$229,999



2 beds / 2 bath

1층 2베드·2베스 콘도, 퓨전사운드·산 전망과 커버드 파킹, 계단 없는 편리한 출입. 업그레이드된 가전, 벽난로, 관리 상태 우수하며 교통 접근성 좋은 즉시 입주 가능 매물.

Tacoma

\$550,000



3 beds / 2 bath • 1,582 sqft

잘 관리된 3베드·2베스 램블러, 최신 지붕·A/C·외벽페인트·샤워·바닥 등 주요 업그레이드 완료. 넓은 보너스룸과 로프트, 커버드 데크·큰 마당까지 갖춘 조용한 동네의 즉시 입주 가능 매물.

Federal Way \$849,950



5 beds / 4 bath • 3,390 sqft

Federal Way Christy's Crossings의 잘 관리된 5베드 크래프츠맨 주택, 대형 아일랜드·그라나이트 상판의 업그레이드 주방과 넓은 생활 공간. 펜스 친 뒤뜰·2차고까지 갖춘 편리한 입지의 실속 있는 대형 주택.

Bellevue \$2,595,000



4 beds / 3 bath • 3,692 sqft

1920년대 크래프츠맨 감성에 맞춘 전면 업그레이드 주택, 화이트오크 바닥·스테인드글라스·양면 벽난로·프렌치도어 등 클래식 디테일 완비, 호수가 끝자락의 조용한 위치, 리모델링된 주방과 레이크뷰 프리미엄 주택.

Federal Way \$719,950



3 beds / 3 bath • 1,870 sqft

9피트 천장과 오픈형 거실·가스 벽난로로 넓고 편안한 분위기. 쿼츠 상판, LVP 바닥, 스테인리스 가전, 커버드 파티오·펜스 마당, A/C 포함의 에너지 효율 주택으로 오픈 스페이스 전망이 있는 매물.

Newcastle \$2,479,900



5 beds / 4 bath • 3,244 sqft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Alterra 주택. 매인하우스+별도 게스트 스위트(홈오피스 활용 가능) 포함한 5베드 구조. 고매 카친, 프라이머리 듀얼 워크인 클로젯, 대형 로프트, 커버드 야외공간까지 갖춘 고급 설계의 신축급 매물.

■ Rent ■ Bellevue \$4,000



5bed, 2.5bath, 2car garage

Puyallup \$614,950



Pending

5 beds / 3 bath • 2,506 sqft



박·쉬나 합동법률사무소

PARK CHENAUR AND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지금 전화하세요

대표전화

253-839-9440

www.parkchenaur.com



김벌리 윤

사무장

24년 이상 경력

253.344.7488



지나 김

사무장

16년 이상 경력

206.498.6040

오피스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사무장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 개인상해

Car Accidents

Personal Injury

법정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능숙한 변호사들!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켜드립니다.

페더럴웨이 오피스:

2505 S 320th St. #100 Federal Way WA 98003
(320가 I-5옆 검은색 유리빌딩 1층)

타코마 오피스:

3517 6th Ave. Tacoma, WA 98406



다솜유치원 신입생 모집안내

수업 월요일 ~ 금요일

대상 2.5세 ~ 5세

주소 15405 SE 37th St Bellevue, WA 98006

- 놀이 중심의 다양한 커리큘럼
- 경험 많고 전문적인 교사
- 안정하고 활발한 학습 환경
- 사회적, 정서적, 학문적 발달 지원

2025~2026
학년도 등록중!
선착순 모집~



문의 206.228.5657(문자)
dasom.christian.academy@gmail.com



벨뷰 · 이사과
워싱턴 학원



권정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1. 최고의 서비스 Best Service

한국어 전용 클레임 서비스

2. 최저의 보험료 Best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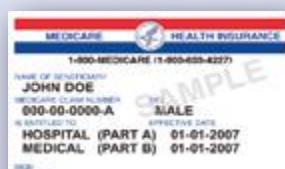
여러 회사와의 비교로 인한 최저 보험료

3. 최고의 회사들 Best Companies

A 급 이상 보험회사들로 견적비교



대표 권 정



SEATTLE BEST INSURANCE INC
시애틀 베스트 종합보험

◎ 메디케어 Medicare 가입기간: 10/15~12/7일
Advantage plans / Supplement / DSNP / PDP (약보험)

◎ 건강보험 / 오바마케어 가입기간:
11/1/21 ~ 12/15/21

◎ 기독의료상조회 CMM 매달가입 가능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보험 | 생명보험

TACOMA OFFICE

9122 SO TACOMA WAY #108 LAKEWOOD, WA 98499
Fax. 253.473.1214
jeonghee@seattlebesti.com

Tel.253.472.3977

LYNNWOOD OFFICE

18623 HWY 99 SUITE #240 LYNNWOOD, WA 98037
Fax. 425.741.3300
johnkwon@seattlebesti.com

Tel.425.741.3600

"안녕도 못한 채 떠난 에디 장로님"

고 박찬영 장로 천국환송예배 지난해 27일 타코마중앙장로교회서 열려
"예수님 위해 불꽃처럼 살다 간 분" 이형석 목사 설교로 유가족 위로

지역 사회와 교회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헌신적인 일꾼으로 사랑받았던 고(故) 박찬영 장로의 천국환송예배가 27일 열렸다.

◆ "슬픔 넘어 천국 소망하는 자리" 지난 27일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본당은 고 박찬영 장로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온 유가족과 교인들로 가득 찼다.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떠나보내는 천국환송예배가 열렸다. 4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박 장로는 지난 12월 19일 금요일 저녁, 두 아들과 함께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저녁 식사를 꾹꾹한 뒤 집으로 가던 중 레이시 마빈 로드에서 발생한 도로 분노 충격 사건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떠났다. 가족에게 안녕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박 장로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밤에 부르는 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맡은 이형석 목사는 고인이 보여준 신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회고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목사는 "박 장로님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위

해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선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을 불들어주시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 음원 발표까지 앞두고 있었던 박 장로를 기리며 선교회와 친양팀이 조가 '그날'을 부를 때 객석 곳곳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모든 참석자가 일어나 '불'을 내려 주소서'를 찬송하며 끝난 이날 예배는 슬픔을 넘어 천국에서의 재회를 소망하는 희망의 자리가 되었다.

◆ "따뜻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 섬긴 일꾼"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난 박 장로는 2010년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등록한 뒤, 2024년 장로 임직을 받으며 교회를 위해 헌신해 왔다.

평소 올림피아 우체국 매니저로 성실히 근무했던 박 장로는 한국어와 영어가 완벽해 커뮤니티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아이들을 향한 남다른 사랑으로

여러 해 동안 어린이 주일학교 부장집사로 섬기며 전도사를 도와 학부모회를 열심히 도왔다. 한국어권과 영어권 양쪽의 학부모들과 수많은 어린이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다. 장로로 임직된 후에도 2세 교육 사역을 계속 이어갔다. 큰아들과 큐티 말씀 묵상을 수년간 진행해 왔고, 아들 또래 다른 가정의 자녀들도 합류해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가르쳤다.

교회 영어권 2세들은 박 장로를 '에디 장로님'이라고 불렀다. 예배에서 한 교인은 "에디 장로님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면 감동이 밀려온다"며 "에디 장로님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셨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교인은 "항상 양보와 친근한 웃음으로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말하기보다는 얘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며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지원을 보여주는 친절한 분이었다"고 고인을 기렸다.

◆ 비통한 유가족, 신앙으로 슬픔 견뎌 부인과 두 아들 등 유가족들은 비통함 속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슬픔을 견디며 조문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 유족은 "우리 모두에게 또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에게 굿바이도 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집으로 떠나버렸다"며 "이제 우리에게는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겼다"고 슬픔을 표현했다.

한편,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서스틴 카운티 검찰은 24세 현역 군인 터커 S. 셔크를 2급 살인, 2급 폭행, 1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셔크는 금요일 기소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격 당시 박 장로의 차량에는 두 아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가정과 하시는 사업체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오년(丙午年)

2026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오명규 · 이사장 은지연 및 임원 이사 일동

조선용 보험에서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파트 A: 병원 / 입원 보장, **파트 B:** 의료 보장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라고도 하며 파트 A와 B를 대신 관리합니다.
다른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D: 처방약 보장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처방약 플랜 - 파트 C 및 D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처방약 (MAPD) 플랜은 메디케어와 계약을 맺은 민영 회사에서 메디케어 A,B 관리를 대행 합니다. 월보험료는 \$0 이거나 그 이상 일 수 있습니다. 최대 본인 부담금 이후에는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는 합당한 의료비라면 100% 커버 됩니다. 다양한 수준의 보장을 포함한 플랜을 제공 할수 있습니다. 해당 플랜의 의료보장, 의약품 코페이가 다를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A, B 를 1차보험으로 사용 할때보다 의사네트워크가 적을수 있습니다.

*어드벤티지 플랜 등록 대신에 메디케어 서플리멘트 플랜을 2차보험으로 선택 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험등록 기간

초기 가입기간(65세 생일이 속한 3개월 전, 후)	Medicare 에 처음 가입하는경우 65세를 기준으로 3개월 전, 후 7개월 동안 가입, 약보험 가입이 늦어지면 매월 평균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연중 가입기간(10/15-12/7)	새로운 약보험,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 가능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 됩니다
오픈 가입 기간(1/1-3/31)	이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있다면 다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변경할 수 있고 약보험에 등록 이 가능합니다
특별 등록 기간	적격 생활 변화이후 2 개월 동안 다른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퇴후 직장보험 상실, 이사 등, 현재플랜이 정부CMS 와 계약이 끝난경우

보험 등록시 유의할 점

주치의, 전문의, 병원, 약국에서 모두 계약이 되어 있는지, 현재 복용중인 약을 모두 커버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년중 총 지불 해야 하는 약 비용에 대하여 비교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세이빙스프로그램, 약보험 보조 프로그램 신청

위 혜택을 받으시면 메디케어 비용에 대하여 보조를 받을수 있으며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듀얼 플랜에 등록자격이 되시며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일 경우 수입 기준이 더 높습니다.



조선용 보험에서는 **메디케어 신청부터**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425-951-9210

(주내과 옆)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オスカ양 변호사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민사소송 및 계약
- 비즈니스 법 (고용이슈 포함)
- 부동산 법
- 상속/자산 관련 법

SPECIAL OFFER
광고 보신분에 한하여
오피스 상담시 첫 상담은 특별가로 해드립니다
전화 상담시 선불 30% Discount해드립니다

Q. 부동산 또는 사업 거래, 협상, 및 계약서 형성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A. 저희는 고객들의 이런 갈등 등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누구의 잘못이고 소송 여부에 더 쉽게 결정 하실 수 있도록
첫 상담을 잡으세요.

Q. 직원으로써, 아님 고용주로써 고용 분쟁이 있으신가요?

A. 저희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토록 진심으로 노력하고,
이미 커졌으면 당신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Q. 채무자에게서 돈을 못 받거나 채권자가 제대로 채무자의 권한을 존중 안해주나요?

A.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 채무자들이나 채권자들을 대변해오고 있습니다. 첫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전에 몰랐던 점들과 잘 못 아시고 계신 점들을 알게 되고, 그 잘못 아시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만불까지도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방문해주세요.

가정법

-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무분쟁 이혼
- 이의 제기된 이혼 분쟁/소송
- 가족 비즈니스 및 다른 자산 분할
- 양육권 및 양육비/배우자 생활 보조비



변호사 사무실

206) 979-7081 (한글 사무직원)

360) 218-7273 (오피스)

team3@esberrylaw.com

Factoria 13555 SE 36th St STE 100 Bellevue, WA 98006
Downtown 1400 112th Ave SE STE 100 Bellevue, WA 98004

다트머스 BA

프랑스 소재 인시아드 경영대 MBA

하버드 정치 행정대 MPP

코넬 법대 JD



시애틀 최저임금 1월부터 시간당 21.30달러로 인상...업주들 부담 호소

- ▶ 1월 1일부터 시간당 21.30달러... 팁 · 의료 혜택 불포함
- ▶ 식당 업주들 "관세 · 세금 인상에 최저임금까지... 경영 어렵다"
- ▶ 워싱턴주 최저임금 17.13달러로 인상... 전국 최고 수준

시애틀의 일부 업체들이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50센트 이상 오른 21.30달러로 인상되면서 추가 비용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 1월 1일부터 21.30달러로 시애틀에서는 1월 1일부터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업체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업주들은 팁이나 의료 혜택을 새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다. 지지자들은 주택, 식료품, 생활비 등 모든 것의 비용이 오르고 있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인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애틀 컬럼비아 시티 지역에서 러프 앤 텁블 펍을 운영하는 젠 반스는 인기 스포츠 바와 레스토랑을 두 번째 장소로 확장했다.

그녀는 "우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과 남성 스포츠를 동등하게 방영하는 곳"이라고 KOMO 뉴스에 말했다. 그녀는 시애틀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균형잡기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 "관세 · 세금 인상에 최저임금까지" 반스는 "시 전역에서 전례 없는 수의 식당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관세, 설당세 인상, 사업세 인상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아마도 여전히 이 도시의 생활비를 충족하기에 충분히 높지 않다"고 반스는 설명했다. "그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인상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반스는 이번 임금 인상이 그녀로 하여금 인력 배치와 운영 시간을 재평가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2025년 1월 1일 발효된 최저임금 인상이 시간당 17.25달러에서 20.76달러로 뛰어 훨씬 더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는 지난해 그런 도전 과제들 중 일부를 해결했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 문닫는 식당들 속출 이번 인상은 많은 업체들이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이뤄진다. 11월에 레스토랑 스키텔은 여러 지점을 폐쇄했고, KOMO 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업주는 높은 최저임금, 식품 비용, 인플레이션, 메뉴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없는 상황을 탓했다. 그린레이크에서는 우든 시티 태번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영구 폐쇄한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웹사이트 계시물에서 직원들은 수지를 맞출 수 없었다고 썼다. "다른 도시들이 어떻게 소규모 사업체들을 변장하도록 돋고 있는지 봤으며, 우리는 시애틀을 사랑하므로 시애틀이 진정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식당들을 지원하는 날을 기대한다." 컬럼비아 시티와 밸러드에 두 지점을 둔 반스는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그녀는 사람들이 생활임금을 벌 수 있



[사진=AI생성이미지]

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모두가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주들이 정말 강력하고 훌륭한 직원 중심의 업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것이 마법일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 워싱턴주 최저임금도 17.13달러로 2014년 시애틀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시간당 17.13달러로 인상된다. 이 변경은 인플레이션과 주변 요건에 연계된 연례 조정을 반영한다. 워싱턴주와 워싱

턴 D.C.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갖게 된다. KOMO 뉴스는 케이터 월슨 차기 시장 사무실에 새해 추가 비용에 대한 업체들의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녀의 사무실에서 어떤 지원이 나올 수 있는지 물었다.

풀뿌리 활동가였던 월슨은 터크윌라, 뷔리엔, 킹 카운티에서 근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 인상 캠페인을 주도하고 응호해왔다. 보도 시간 및 연후 주간 현재 KOMO 뉴스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시애틀 레스토랑 연합과 그레이터 시애틀 비즈니스 협회도 금요일에 의견을 제공할 수 없었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K-beauty
FIND YOUR BEAUTY

화이트 태닝
Red Light Therapy
피부에 조명을 켜다!!

페더럴웨이점 206-670-8654 / 2150 S 314th St Federal Way, WA 98003
린우드점 425-561-7866 / 18420 33rd Ave W Unit 26, Lynnwood WA

2026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광역시애틀한인회
GREATER SEATTLE KOREAN ASSOCIATION

회장 김원준 · 이사장 샘 심

이영이 보험

- ✓ 곧 65세가 되십니까?
- ✓ 직장보험이 종료 되십니까?
- ✓ 타주에서 이사오셨거나 거주지가 바뀌셨습니까?
- ✓ 파트 D(약보험)으로 Extra Help를 받으십니까?
- ✓ Medicare와 Medicaid를 소지 하셨습니까?

*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스페셜 가입기간에
Medicare Advantage(Part C)나
보충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욱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영이 보험이 여러분의
올바른 메디케어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
상담전문

Licensed Insurance Agent
206.407.8478
206.250.2760
youngyi712@gmail.com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보유



2026년 워싱턴주 새해연합(오찬)기도회

2026년 새해를 맞아 워싱턴주의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한인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살고있는 워싱턴주와 고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무대가 될 미국과 통일한국에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2024 워싱턴주새해연합기도회_시애틀뉴비전교회>

타코마/훼더럴웨이/시애틀 지역의 목회자들과 워싱턴주내의 선교단체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모두 함께 기도후, 협찬교회에서 정성껏 제공하는 오찬으로 새해인사를 나누세요.

▶ 기도자: 각지역 목회자들 “이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 ◆ 일 시: 2026년 1월 8일(목) 오전 11시
- ◆ 장 소: 훼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김태연 목사)
37505 28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 주최/주관 : 워싱턴주선교단체협의회



■ 협력 : 워싱턴주 교회연합회/목사회, 워싱턴주한인단체들 ■ 협찬: 훼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 미디어한국

"한인의 날 함께 기념해요~"

제19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기념식, 1월 13일 시애틀 총영사관서 개최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 (WASHINGTON STATE KOREAN AMERICAN DAY CELEBRATION FOUNDATION)이 오는 2026년 1월 13 일(화) '제19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115 W Mercer St Seattle, WA

9819)에서 열리며, 오전 11시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정식 순서와 오찬이 이어질 예정이다. 일정은 △11:00~11:30 네트워킹 △11:30~12:30 기념식 △12:30 오찬 순으로 진행된다.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 2007년, 사회·정치·경제·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해 온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인정해, 미주지역

에서는 처음으로 1월 13일을 공식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로 제정했다. 오는 2026년 기념식은 이 한인의 날 제정 19주년을 맞아 열리는 행사로,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와 공헌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를 격려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축제재단은 초청장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가 이뤄낸 성취와 위상을 함께 기념하

는 뜻깊은 날"이라며 "워싱턴주 한인사회를 이끌어가는 각 단체장과 리더 여러분은 물론, 많은 워싱턴주 한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영어 안내문을 통해서도 "19th Annual Washington State Korean American Day Celebration을 맞아, 한인 커뮤니티 리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9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행사는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이 주관하며, 김성훈 이사장, 김필재 대회장, 윤이나 준비위원장이 실무를 맡고 있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wakorreanamerican@gmail.com) 또는 전화(206-491-1918)로 사전 예약(RSVP)을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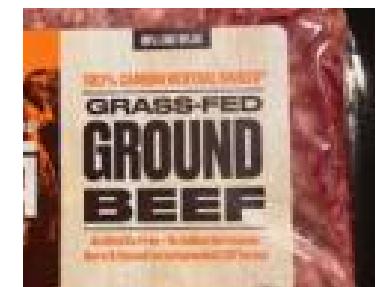
워싱턴주서 다진 소고기 리콜... 대장균 검출

워싱턴주를 포함한 6개 주에서 판매된 일부 다진 소고기(ground beef) 제품이 이콜라이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다. 28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조사국(FSIS)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아호주 해

이번에 본사를 둔 마운틴 웨스트 푸드 (Mountain West Food Group)가 약 2,855파운드의 생 다진 소고기를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포워드 파마스(Forward Farms)' 브랜드의 16온스(약 454g) 포장 제품으로, 판매기한(Sell-by) 1월 13일, 제조일 12월 16일, 공장 코드 EST 2083이 표시돼 있다. 현재까지 관련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FSIS에 따르면 정기 검사

에서 이콜라이 O26이 검출됐다. 이는 흔히 알려진 O157:H7과 마찬가지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게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소비자가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 중일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품은 워싱턴주 외에도 캘리포니아·콜로라도·아이다호·몬

태나·펜실베이니아로 유통됐다. 당국은 구입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로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6월에는 훌푸드마켓에서 판매된 오게닉 랜쳐 다진 소고기도 이콜라이균 오염에 대한 우려로 전국 리콜된 바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SLEEPING CAMEL

몽골 직수입 최고급 순모
특상급 명품 쌍봉낙타 순모

타코마: 253.227.8586
페더럴웨이: 253.232.9277
린우드: 206.670.8654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시애틀협의회 회장 황규호



드림투어

Cruise & Travel

꿈 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06-200-3113

페더럴웨이 H마트 건너편
(전화/문자 상담 가능)

TALK 카톡으로 빠른
상담하기 실시간상담
드림투어



최저가 항공권

여행권이 인터넷보다 싸다!!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 크루즈 • 항공권 • 투어 • VIP의전 • 연수 • 버스대절

여성 룸조인 1인

2월26일
출발

아라비아 3개국 크루즈

두바이/아부다비/바레인/카타르

9박 10일

\$3,790

시애틀 왕복 항공, 세금포함



- ▶ 전일정 기항지투어 포함
- ▶ 사막사파리 포함
- ▶ 최신식 대형 선박 탑승
- ▶ 각 지역 전통식, 특식제공

5월14일
출발

프리미엄 BEST OF BEST 추천상품

서지중해 크루즈

10박 11일

\$4,299

시애틀 왕복 항공, 세금포함

바르셀로나(스페인)/팔마데마요르카(스페인)/마르세유(프랑스)
아작시오(프랑스)/산타마르게리타(이탈리아)/제노바(이탈리아)
피렌체(이탈리아)/로마(이탈리아)

- ▶ 바티칸 포함! / NO 옵션
- ▶ 특식제공 / 4성급 호텔 숙박
- ▶ 전일항해 없이 꽉찬 일정
- ▶ 이탈리아 로마 벤츠 투어 포함!

4월24일
출발

9박 10일



\$2,699

+ 항공

동지중해
크루즈 3개국

- ▶ 이탈리아 · 그리스 · 터키 3개국 핵심 일정
- ▶ 산토리니 - 동지중해 대표 인기 기항지
- ▶ 쿠사다시 - 고대 에페소 유적 탐방 가능
- ▶ 카타콤론 - 올림픽 발상지 올림피아 방문
- ▶ 로마 · 나폴리 포함 도시+휴양 완벽 조화 노선
- ▶ 이동 없이 크루즈로 편하게 3개국 여행

2월28일
출발

크루즈상품

로스엔젤레스/로스카보스/마틀란
푸에르토 비야타/로스엔젤레스멕시코
크루즈인솔자
동반
\$999

항공 포함

8월21일
출발

북유럽크루즈

\$3,599

- ▶ 영국/노르웨이/덴마크 대표기항지 포함
- ▶ 런던 시내관광 포함
- ▶ 시애틀→런던 직항 이용

항공 포함

5월3일
출발

9박 10일

여성 룸조인 1인
남성 룸조인 1인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바티칸)

서유럽 완전정복

- ▶ 전일정 4성급 호텔 숙박, 모든 옵션 포함
- ▶ 서유럽에서 맛봐야 할 요리, 특식제공
- ▶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 등정
- ▶ 로마 안에 작은 도시 바티칸 시국 관광
- ▶ 이탈리아 로마 벤초투어 포함!

\$4,290

시애틀 왕복 항공, 세금포함

랜드상품

동유럽+발칸 7개국 13박 14일

5/2,18, 6/8/2026 출발

\$3,599

+ 항공

동유럽 핵심 4개국 8박 9일

5/2, 6/8/2026 출발 \$2,599 + 항공

발칸 4개국 8박 9일

5/7,23, 6/13/2026 출발 \$2,599 + 항공

국제 크루즈 연맹 인증 크루즈 전문 여행사 드림투어의 Partner 선사



병오년(丙午年)

2026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謹賀新年

희망찬 새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미주 한인회 서북미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American Associations of Northwest States, USA
(Alaska, Idaho, Montana, Oregon and Washington)

조기승 회장, 지병주 이사장 및 임원 이사 일동



광역 시애틀한인회
회장 김원준



워싱턴-타코마한인회
회장 임경



스포Ken 한인회



벤쿠버-워싱턴 한인회
회장 지병주



오레곤 한인회
회장 프란체스카 김



유진 한인회
회장 김성윤



몬태나 한인회
회장 윤계선



아이다호 한인회
회장 조대환



알래스카 앵커리지 한인회
회장 백점숙



페어뱅크스 알래스카 한인회
회장 장성채

청매실

330g

홍쌍리 청매실 농축액
\$149.99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3g 정도(찻숟갈 하나)
그냥 섭취하거나
음용수에 희석하여
꿀이나 기타 간미료를
혼합한 뒤 섭취

홍쌍리 청매실 농축액은 정성스럽게 재배한 매실을 씨앗 분리기에서
씨를 분리시키고 100% 매실즙만으로 가용성 고형분을 75% 이상으로
고농축 시킨 후 전동옹기에서 숙성시킨 제품입니다.

홍쌍리 청매실원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매실을 올리고당과 7:3 비율로 배합하여
50년 이상된 전통 항아리에 넣어 발효 숙성시켜 만든 매실 원액으로서
몸에 이로운 구연산 등 각종 유기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가족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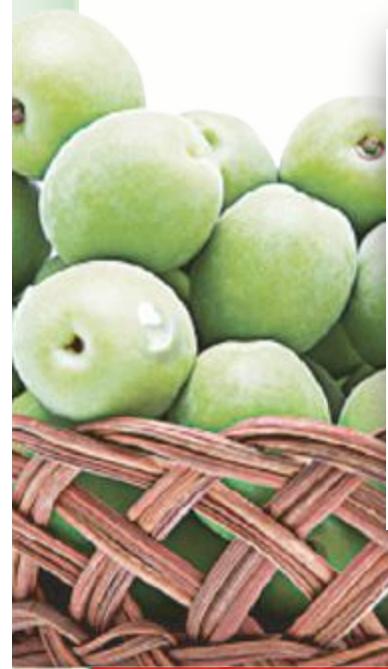
420ml x 2병
홍쌍리
청매실원 선물세트 2호
\$33.95



1.5Lt
홍쌍리
청매실원
\$54.95



420ml
홍쌍리
청매실원
\$19.95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세일즈를 구합니다. Email : twin0418@aol.com

또는 이력서를
가지고 내사바람

매실의 효능

- 피로회복
- 체질 개선
- 간장보호 및 간기능 향상
- 해독작용
- 소화불량, 위장장애 해소
- 칼슘 흡수율 증가
- 살균, 살충작용
- 만성 변비
- 피부 미용
- 염증 제거



안깍아도 싸게 파는
신신백화점

8726 South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구입
문의

월-토: 10AM-7PM / 일: CLOSED
253-582-2975

WASHINGTON STATE KOREAN AMERICAN DAY CELEBRATION FOUNDATION

제19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

KoreanAmericanDay.org



謹賀新年 2026

병오년
(丙午年)

Happy New Year!

In honor of the 19th Annual Washington State Korean American Day Celebration, we extend a heartfelt invitation to all leaders and heads of Korean community organizations.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은 제 19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기념식에 귀하를 정중히 초청 드립니다.
워싱턴주 의회는 한인 커뮤니티가 사회, 정치, 경제,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준 탁월한 기여와
위상을 인정하여, 2007년 1월 13일을 미주 최초로 '한인의 날'로 공식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기념일을 함께 축하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We sincerely hope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Thank you.

- 일시: 2026년 1월 13일(TUESDAY)
- 장소: 대한민국 총영사관(115 W. Mercer St Seattle, WA 98119)
- 일정: 11:00~11:30(네트워킹) / 11:30~12:30(기념식) / 12:30(오찬)
- RSVP: wakoreanamericanday@gmail.com / 206-491-1918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

WASHINGTON STATE KOREAN AMERICAN DAY CELEBRATION FOUNDATION

이사장: 김성훈 / 대회장: 김필재 / 준비위원장: 윤이나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7.13달러"

광역시앤판인회, 지난해 12월 29일 한인 대상 노동법 세미나 개최
L&I 지역사회 관계 협력팀 김지원 코디네이터 초청해 한인회관에서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abor & Industries · L&I)가 한인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글 노동법 설명회를 열고, 2026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과 유급 병가 등 핵심 권리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29일 광역시앤판인회관서 열렸으며, L&I 지역사회 관계 협력팀의 김지원 코디네이터가 진행했다. 김 코디네이터는 "L&I는 워싱턴주 전역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법을 교육·관리·집행하는 주정부 기관"이라며 "특히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이민 커뮤니티가 언어 장벽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돋기 위해 우리 팀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한국어가 가능한 그는 워싱턴 전역의 한인 사회를 직접 찾았고 교육과 상담을 맡고 있다.

김 코디네이터는 먼저 L&I가 발행한 '비즈니스 필수 사항(Business Essentials)' 한글 안내 자료를 나눠주고 기본 의무를 설명했다. 사업장은 필수 노동법 포스터를 게시하고, 급여·인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 안전 규정과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가입해 주고,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부분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이었다. 김 코디네이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전역의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7달러 13센트로 인상된다"며 "주 내 어디에서 일하든 이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애틀, 렌튼, 벨링햄 등 일부 도시는 자체 조례로 이보다 높은 시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어, "자신이 일하는 도시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무 수당(Overtime)에 대해서도 자세한 안내가 이어졌다. 그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한다"며 "월급제라고 해서 누구나자동으로 초과수당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정 직무와 직책, 그리고 연간 최소 약 8만 6000달러 이상의 급여 등 엄격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달에 5000달러를 받는다고 해서 '나는 월급제니까 오버타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L&I에 문의해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자의 휴게권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김 코디네이터는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3시간이 되기 전에 반드시 10분의 유급

식사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하루 8시간 근무 시 최소 두 번의 10분 유급 브레이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시간은 어떤 합의로도 포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 권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식사 시간의 경우 하루 5시간 이상 일하면 최소 30분의 무급 식사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다만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채 일을 병행하며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30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근로기준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려면 법적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L&I의 청소년 고용 허가와 부모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지붕 작업, 화기 사용 등 위험한 작업은 시킬 수 없고, 늦은 시간 단독 근무도 제한된다. 임금 역시 14~15세는 성인 최저임금의 85%를 받을 권리가 있다. 김 코디네이터는 "청소년인지 모르고 채용했다가 뒤늦게 문의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며 "고용 전부터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급 병가(Paid Sick Leave)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코디네이터는 "모든 근로자는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근

무 40시간당 최소 1시간의 유급 병가가 적용된다"며 "입사 후 90일이 지나면 이 시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질병은 물론, 가족이나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돌봐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쉬는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특히 그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유급 병가 중 40시간까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만, 그 이상은 모두 소멸된다"며 "내게 얼마나 적립돼 있고 얼마를 썼는지는 급여 명세서에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한인 근로자들이 본인의 유급 병가 잔여 시간을 전혀 모르는 현실도 지적했다. "급여 명세서를 어디서 보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사업주들에게도 직원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코디네이터는 유급 병가와 휴가(Vacation)의 차이도 분명히 했다. 유급 병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휴가는 사업주가 인재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고용 당시 약속한 휴가 규정은 약속대로 지켜야 하지만, 법으로의 무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퇴사 시 남은 유급 병기를 현금으로 정산해 줄 의무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작업



L&I 지역사회 관계 협력팀 김지원 코디네이터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장 안전 프로그램, 사고·사망 보고 절차 등 L&I 한글 안내 책자에 담긴 내용도 함께 소개됐다.

김 코디네이터는 킹카운티 내 터킬라·시애틀·벨뷰에 있는 세 곳의 L&I 지역사무소 위치를 안내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언제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사업장 방문이나 1:1 상담, 추가 한글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코디네이터는 "워싱턴주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한인 근로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L&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달라"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박재영 기자

FDA, '먹는 위고비' 승인...비만 치료 패러다임 전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 경구용 약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체중 감량용 GLP-1 계열 약물 가운데 처음으로 경구 정제가 승인된 사례로, 주제 중심이던 비만 치료제 시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승인된 위고비 약은 하루 한번 복용하는 정제형으로, FDA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의 체중 감소와 유지, 심혈관계 위험 감소 목적 사용을 허가했다. 약의 형태는 주사에 대한 거부감

을 줄이고 복용 편의성을 높여 치료 접근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상시험에서 25mg 용량을 복용한 참가자들은 평균 약 16.6%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며 주사형과 유사한 효능을 나타냈다.

WSJ은 이번 승인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2026년 초 미국 시장 출시를 예고했으며, 기존 주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는 자체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Orlistat)'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비만 치료제 시장이 경구제 중심의 경쟁 국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주사에 부담을 느끼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환경하면서도, 실제 처방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와 장기적 안전성 데이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조이시앤판뉴스>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스포츠서울USA
Sports Seoul SEATTLE

MEDIA GROUP CORP.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com

이성수(수필가·서북미문협회원)

신년 새벽 1시(時)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셔서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할 수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였다. 농사를 짓는 집안이라 낮에는 농사일손을 돋고 밤에는 대입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밤이 점점 깊어감에 따라 사방은 조용하고 앞 눈의 개구리 울음소리만 구슬프게 들렸다. 살라만상 모든 것이 잠들고 있는데 나는 임시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시간은 밤 12시가 넘어 1시를 지나고 있다. 공부에 열중하여도 개구리 울음소리가 방해가 된다. 개굴! 개굴! 고요한 들녘을 개구리 울음소리가 적막을 깨고 있다.

가을이 되면 멀리에서 들리던 개구리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가까이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소리는 시끄럽게 크게 들린다. 물론 공부에 방해가 된다. 식구들 모두 잠든 고요한 밤에 '귀뚤! 귀뚤!' 울어 대는 소리는 자장 가로 들릴지 몰라도 나에게는 시끄럽게 들린다. 가을의 전령사(傳令使)인 귀뚜라미는 정확히 가을과 함께 온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사라진다. 곧 겨울이 오면 임시 공부도 피크에 달해 개구리 울음소리도,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진짜 적막이 찾아온다.

긴긴 겨울밤 공부에 여념이 없다. 새벽 1시가 되었을까. 갑자기 주위가 고요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 보니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다. 눈의 입자가 소리를 흡수하여 고요한 것이다. 너무 적막하니 오히려 공부가 안되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미 돼지를 사육하여 새끼를 내서 시장에 팔았다. 우리 집 돼지가 새끼를 맹지 114일 만에 새끼를 낳는 날이다. 할아버지는 분만(分娩) 현장에서 새끼를 받아 나를 주면 나는 수건으로 싸서 조심스럽게 사랑방 아랫목으로 옮기곤 하였다. 그냥 두면 어미 돼지는 배 밑으로 젖을 찾아 파고들어 가는 제 새끼를 깔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께서 방에 있는 어린 새끼를 가지고 오라 해서 한 마리를 어미 품에 넣어 주

었다. 그런데 처음 한 마리를 넣자마자 냄새를 맡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사정 없이 제 새끼를 물어 죽였다. 느닷없이 당하는 일이라 당황하고 놀랐다. 나를 보고 할아버지되는 침착하게 "야아! 너 새끼를 받아 가지 고 어떻게 하였느냐"고 물으셨다.

"붓으로 먹물을 찍어 귀에 일련번호를 썼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할아버지는 "먹물에 향료가 들어 있어 어미 돼지가 그 향료 냄새를 맡고 역겨워 제 새끼가 아니라고 물어 죽인 것이다."라고 하셨다.

"빨리 어미 돼지 오줌을 새끼 몸에 고루 발라라. 특히 귀 근처는 더 많이 발라라."라고 하셨다. 돼지는 시각(視覺)보다 후각(嗅覺)이 발달하여 제 새끼를 눈으로 보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냄새로 새끼를 알아본다는 사실을 할아버지는 말씀해 주셨다.

얼른 할아버지의 지시대로 하고 어미 품에 새끼를 넣어 주었다. 어미 돼지는 한동안 새끼 냄새를 맡아 보더니 순해져서 젖을 잘 먹였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른 새끼를 모두 넣어 주었다. 그때 괘종시계가 신년(新年) 새벽 1시를 뻥! 하고 쳤다. 새해가 밝아 있었다. 새끼 9마리가 어미 젖을 빠는 소리만 들릴 뿐 사방은 고요하였다.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식구들 모두 꿈나라로 갔는데 나만 혼자 9마리 새끼의 안전을 염려하여 돼지집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낮보다 밤에 글 쓰는 걸 좋아한다. 낮에는 전화 벨소리, 전화 통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주방에서 나는 물소리, 옆집에서 나는 소음, 문밖에서 들리는 차 지나가는 소리, 손님이 방문하여 수다 떠는 소리 등 실로 부산하다. 밤은 소리가 없어 고요하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글을 쓸 분위기가 좋아 오직 글 쓰는 일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다.

밤 12시가 지나 신년 새벽 1시(時)가 되니 사방은 점점 조용해진다. 컴퓨터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린다. 나의 눈은 컴퓨터 화면에서 떠나지 않는다. 신년에도 새벽 1시(時) 경에 글을 써야겠다. 그게 훨씬 능률적이다.

FBI '현상금 100억원 내건 심현섭은 누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법자금 세탁을 총괄해 온 핵심 인물 심현섭을 지목하며 최대 700만달러(약 104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WSJ이 미 법무부 기소장 등을 토대로 전한 바에 따르면, 심현섭의 주요 임무는 해외에서 북한 지도부를 위한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세탁하는 것이다.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와 해커 조직을 통해 러시아·중국·아프리카

등지에서 매년 수억달러 규모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 자금을 주적이 어렵도록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심현섭 같은 '은행가'들이 등장한다. 대외무역은행 계열사 대표였던 심현섭은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돼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한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북한대사관 대사대리는 "브로커를 통해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고 위장회사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라고 그의 수법을 증언했다. 북한의 IT 인력이 해킹으로

빼돌린 암호화폐는 여러 디지털 지갑을 거친 뒤, UAE·중국 등지의 브로커를 통해 달러로 교환된다. 이후 자금은 심현섭이 만든 위장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가 북한 정권이 필요한 물품 구매에 직접 사용된다.

2019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기를 구입해 북한으로 들여올 때에도 약 30만달러가 이런 방식으로 쓰였으며, 대금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한 로펌을 거쳐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심현섭은 시티·JP모건·

웰스파고 등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해 310건, 총 7400만달러(약 106억원)에 달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은행가들이 수년에 걸쳐 최소 60억달러(약 8조900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했다고 추정한다.

심현섭은 가짜 담배 제조·밀매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보로 등 유명 브랜드 담배의 위조품 생산에 필요한 담뱃잎을 중국·UAE 등지에서 위장회사를 통해 조달해 북한으로 운송했

고, 대금 결제 역시 글로벌 은행망을 활용했다. 그는 2016년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2023년 미국의 제재 명단에도 포함됐다.

2022년 UAE에서 출발된 뒤 중국 단통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체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심현섭의 활동을 알지 못하며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 휴=아시아투데이) <조이시애틀뉴스>

K-beauty
FIND YOUR BEAUTY

페더럴웨이점 예약문의 : 206-670-8654
예약가능시간 : 화~금/오전 10시~오후 6시, 토/오전 10시~오후 3시
주소 : 2150 S 314th St Federal Way, WA 98003

린우드점 예약문의 : 425-561-7866
예약가능시간 : 화~금/오전 10시~오후 6시, 토/오전 10시~오후 3시
주소 : 18420 33rd Ave W Unit 26, Lynnwood WA

화이트 태닝
Red Light Therapy
피부에 조명을 켜다!!

프리미엄 멀신
BEAUTY ANGEL 뷰티엔젤

뷰티엔젤은 핵발의 일조량으로 환산하면 한여름 맑은 날의 3~4배 강도의 633nm 파장 램프를 이용한 장비로 피부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피부재생 주기**를 빠르게 앞당겨 맑은 피부로 되돌려주는 노화방지 멀신으로, 이미 유럽에선 **Red Light Therapy**를 여러 피부질환에 사용 중이며, 다양한 스킨케어 프로그램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특정 파장의 빛을 진피까지 전달해 콜라겐 생성 세포인 섬유아세포(fibroblast)를 자극,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촉진해주고, 염증 매개체인 사이토카인(cytokines)의 생산을 조절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는 피부질환이나 손상 후 염증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증가시켜 영양공급과 노폐물 제거를 촉진해 피부 건강을 개선할 뿐만아니라, 세포 성장과 분열을 촉진시켜 상처 치유 과정을 가속화 해 상처나 홍터 회복을 도와줍니다.



새로운 당신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선택,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시애틀한국문화센터

노래교실
동호회

월요일
11시~2시



K-POP
댄스

토2:30~3:30
토4시~5시



대화로하는
생활영어

토·일
시간미정



생활영어

일요일
4:30~6시



스페니시
클래스

시간미정



냉동, 냉장
기술

시간미정



라umba
댄스

화·토
10시~11시



라인댄스

목요일
10시/11시



요 가

화·금
10:30~12시



건강
유연운동

목요일



이달의 추천 강좌 <스페니시 클래스>

"두뇌 건강 + 언어 실력, 동시에 잡자!"

1. 스페인어, 생각보다 쉽고 재밌다!
2. 여행, 비즈니스, 건강까지! 스페인어로 더 넓게!

"전 세계 5억 명과 소통할 기회!"

뇌를 젊게, 인생을 넓게!

가장 실용적인 언어, 스페인어!

무료로 배우고 평생 활용하세요.



시애틀한국문화센터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문의 및 등록: 206-759-0125

[강사 초빙]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 ▶ 전문 기술직: 현장 실무 관련 강의 가능하신 분(예:냉동, 전기, 컴퓨터)
- ▶ 음악/예술: 악기를 다루시는 전공자 (예: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드럼, 미술)
- ▶ 그 외: 어떤 분야든 교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가진 분

'엘리엇 김'의 감성과 지성

엘리엇 김
윤성재단 이사장

(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5년 한해는 한국과 미국을 두고 보았을 때 한마디로 격동의 한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치열한 대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됨으로써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연방정부 기구의 축소와 통폐합, IT 관련 기업체들의 대량해고, 관세정책 등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며 한국은 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여파로 윤석열 정권이 실각하고 이제 명 정권이 들어서는 등 그야말로 격랑의 소용돌이가 몰아친 한해였습니다. 이 한해를 돌아보며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이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할 국내 현상황과 아울러 나아갈 길을 함께 생각해보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계 미국인, (Korean American)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엇 김) 한국계 미국인 'Korean American'이라는 단어에 대해 나름대로의 정의를 먼저 내려보고 싶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특히 아직은 모국어인 한국어에 더욱 익숙한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분명 한국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언어는 그 사람의 지성을 포함한 문화와 감성표현의 엣센스 이니까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라고 말한 루트비히 비트 켄슈타인의 명언은 이점에서 참 절묘한 표현입니다. 내 세계와 내 문화의 한계는 한국에서 미국에 까지 넓혀져 있고 미국에서 한국에 까지 달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횡문화를 가질 수 있는 우리는 수많은 세계인들 중에서도 축복이자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엄연히 미합중국 국민입니다. 한국의 국적법상 우리들의 지위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외국인들과 동일하게 한국 내 정치적,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켜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문화적, 정서적으로는 한국인이고 정치적, 법적으로는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항상 옮바르고 혁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변했다고 합니다.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도 사라져 가고 America First라는 구호 아래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그런지 분석해 주십시오. (엘리엇 김) 이러한 현상의 원인들은 국내 및 국제 간의 정치, 외교적 역학관계 등, 수많은 복합적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 저는 우선 자원경제 학적인 시각에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원래 건국 당시부터 외교적으로 대외 불간섭주

엘리엇 김의 감성과 지성 신년 특집대담

의, 고립주의적인 노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전쟁과 봉건적 계급주의와 종교적 펑박이 난무하여 환멸을 느끼고 떠나온 유럽에 더 이상의 큰 기대나 미련을 갖지 말고 신천지 미대륙에서 우리 이민자들끼리 스스로 우리들의 운명을 유럽의 간섭 없이 개척해 나가는 프론티어 정신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터진 1.2차 세계대전에 마지못해 휘말려 들며 전쟁통에 절단 나버린 유럽의 산업생산을 대신하면서 세계적인 산업 생산기지가 되어버려 세계 최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국가가 된 미국은 석유에너지 자원이 바로 산업과 국민생활에 피와도 같은 절실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하루 1,200만 배럴의 엄청난 석유를 수입하여 유지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석유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미국은 19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1973년,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유로 미국과 전세계를 겨냥한 압력수단으로 석유생산량을 줄이자 두 달 만에 석유가격이 뉘어나 뛰었습니다. 1979년엔 이란 혁명으로 이란이 석유를 무기화 하여 금수조치하자 2차 오일쇼크가 터집니다. 이를 체험한 미국 예전 중동문제와 석유수송 항로의 안전문제 확보가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동지역에 미군을 주둔 시켰으며 석유 수송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는 항상 한계 이상의 해 항공모함 전단을 상시배치, 전개하게 하였습니다. 미 해군이 이 항로를 지켜주는 덕택에 미국의 우방이든 적국이든 관계 없이 안전항해를 보장 받았던 것입니다. 중국조차 이러한 미국의 혜택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석유는 고갈 될 것이고 곧 석유생산은 줄어든다는 세계적인 석유자원 위기론이 단 한 방에 사라져 버린 획기적인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일 에너지를 경제 성 있게 캐내는 기술이 개발 되었고 2020년부터는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백년간 소비한 석유의 총량이 약 1조 배럴인데 미국 그린리버 분지에만 약 3조 배럴의 세일에너지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된 것입니다. 미국이 에너지 자급 자족에 성공하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강국이 되니 미국이 세계를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중동이든 어느 나라든지 미국에 대해 건방지게 조롱을 해도 혹시나 석유를 무기화 하면 석유값이 폭등하고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니 참아주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순하게 대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타국으로부터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아니라 자신을 뽑아준 국내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들의 눈에는 외국의 일보다는 국내 유권

자들의 표와 여론이 더욱 강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유권자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 특히 산유국들 눈치를 볼 필요 없고 세계 경찰 노릇할 필요도 없어졌으며 미국에 대한 직접적으로 위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외국의 전쟁터에 우리들의 소중한 아들딸들을 내보내어 전사자, 상이군인들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처참한 비극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정학자 이자 전략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미국은 앞으로 한국의 DMZ를 지켜줄 이유가 없게 되었다."라고 까지 예측합니다. 북핵문제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까지 날라와 직접 위협이 될 만한 핵폭탄 투발수단인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만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조치를 강구하겠지만 북한이 그러한 ICBM 운송수단 없이 겨우 핵폭탄만 들고 겹주는 것에는 크게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ICBM의 개발과 발사 쪽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안보환경과 입장은 미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직선거리가 겨우 약 30마일이며 북한의 원산과 일본 도쿄의 직선거리는 불과 600마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 때라고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America First는 미국의 기본 전략이 된 것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라는 말은 미국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외교관료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문구는 대외적으로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문구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 이렇게 변화하는 미국과 국제관계의 역학 가운데 있는 우리 미주한인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엘리엇 김) 1년 전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연말에 성탄시즌이라 가까운 미국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습니다. 미국 생활하는 가운데 대화의 화제로 정치와 종교 등 각자의 견해가 달라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 화제는 금기시 하지만 그 정도의 실례는 봐줄 수 있는 친구들이 이기에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과 정치 사태를 화두로 껴집어 내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의 첫 반응이, "웬 계엄?" 하는식이고, 몇몇 듣다가 나오는 반응들은 "That's too bad."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미국 주류 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나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일로 흥미도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들의 후세 대들도 꼭 같은 mentality를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린 여기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의 정치사회적 관심을 태평양 건너 한국에 보다는 바로 이땅, 내동네, 내나라인 미국 내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에 관심과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민 역사가 짧은 우리 한인들은 이나라에 갓 시집온 새색시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신 하와이 대학교 정치학과의 고서 대숙 교수님의 말씀은 아직도 우리 모두가 마음 속에 꼭 새겨 두어야 할 참 좋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먼저 시댁의 가풍과 법도를 잘 익히고 시댁의 일에 열심을 내어야 칭찬 받을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우리 한인들이 현실적으로 미국 사회에 더 다가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나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엘리엇 김) 우리 한인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우편번호 zip code는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선거구, election district의 번호를 아는 분들과 나와 내가 정의 삶의 기반인 우리 동네 공동체에서부터 거대한 미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나를 대신 해주는 대의원인 나의 시의원, 카운티 의원, 내 선거구의 주 상하원 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의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검색해서 그들의 프로필을 두루 보시고 우리 동네 시청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시의회 미팅 날짜와 의제들을 보신 후 시의회가 있는 날에 자주 참석하여 구경하시는 것부터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가기가 처음에 어색하다면 동네 친한 친구들과 같이 가셔서 시의회 의원들, 시장과 경찰서장과 간부들, 시청 직원들, 그리고 함께 참석한 동네 유지들과 서로 인사 나누고 사귀시며 우리 동네가 돌아가는 살림살이와 형편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의 회의 진행법이나 의사 별언하는 방법들도 배우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동네 시의회 미팅에 단골 고객이 되어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사귀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우리 한인들의 존재와 위상을 높이는 가장 좋은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국 문제를 비롯한 외국에 관련된 일들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United States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와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이와 관련된 의견이나 청원사항 들이 있다면 각자의 선거구 연방 상·하원 사무실로 이메일이나 SNS를 통하여 제출하시면 그 선거구 주민의 의견들을 워싱턴 D.C. 연방 의회의 각 소관 부처에 전달하게 됩니다. 아니면 직접 위의 소관 위원회를 검색하여 소속 상·하원 의원들께 염려하시는 의견이나 청원을 보내어 국회 내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 KOAM-TV
편성표 1월 5일 - 1월 11일

KOAM TV 공개홀 대여 가능 (최대 205명) 컴캐스트 리미티드 케이블 \$15 - 20 + 코엠 월 \$14.99

	월 (1/5)	화 (1/6)	수 (1/7)	목 (1/8)	금 (1/9)	토 (1/10)	일 (1/11)	
5					KTV 뉴스		KTV 뉴스	5
6	김학준 목사				종교	종교	영서 교회	6
7					KTV 뉴스	KTV 뉴스	KOAM News	7
8				KO-AM 뉴스		기분 좋은 날	세례당 교회	8
9	40	명선 교회	한사랑교회	현재 교회	타코마제일침례 교회	기분 좋은 날 (재)	영자 바다야	9
10	20			태양을 삼킨 이자		쪽 쉬운 디렉토리	기분 좋은 날 (재)	10
11				오늘 아침		나 혼자 산다 (재)	타코마 침례교회	11
12		극한 84		이 강에는 달이 흐른다	알바로 바캉스 (재)	실화탐사대	라디오 스타 (재)	비디오 여행
13		여행자 바다야	남극의 세프 (재)		놀면 뭐하니 (재)	전지적 참견 시점 (재)	네트워크 특선	데이어햄 길
14				MBC 뉴스 투데이		KTV 뉴스	구해줘 홈즈	KTV 뉴스
15				KTV 뉴스		MBC 뉴스 투데이	MBC 드라마	놀면 뭐하니 (재)
16		담나는 TV		MBC 드라마			MBC 드라마	MBC 드라마
17				MBC 뉴스 투데이				복면가왕
18				MBC 오늘 저녁				신인감독 김연경
19				태양을 삼킨 이자				
20				KO-AM 뉴스			MBC 뉴스	
21		남극의 세프	이 강에는 달이 흐른다	알바로 바캉스	실화탐사대	MBC 드라마	전지적 참견 시점	담나는 TV
22				KTV 뉴스				
23		남극의 세프	PD 수첩	라디오 스타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		
24							기분 좋은 날	
1				기분 좋은 날			오늘 아침	1
2				오늘 아침				2
3								3
4								4

* 방송국 시정에 따라 변경 또는 특별 연설으로 프로그램 연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 모도 교양, 다큐 드라마 오락 특집 방송 종교

CH 257

Comcast 한국어 방송문의: 855-955-1121
KOAM TV 방송문의: 253-946-5537

KOAM 프로그램을 "MOBILE"에서 만나보세요!

Xfinity 스트리밍 앱 다운로드 후
KOAM Ch. 257을 찾으세요

• 실시간 시청 가능!

벼룩시장

J&J CLAIMS 지원자 모집

현재 J&J CLAIMS (www.carcrashwa.com) 팀에 합류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직무:
개인 상해(자동차 사고 등) - 2명
일반 소송(법률 보조) - 1명
▶근무지: 다운타운 타코마 (IRS 빌딩 6층)
▶자격 요건: 영어/한국어 가능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 (MS Word, Excel 등)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오후 5:00
▶근무 환경: 실내주차장 제공,
깨끗한 주변, 안전한 근무 환경
▶페이조건: \$22~\$52.08 +
▶업무 내용: 고객(병원 등)과의
소통/병원 및 고객 관련 문서 관리 및 정리
지원 방법: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sung@carcrashwa.com으로 제출해 주세요.

북경가든 주방장 구함

주방장 구함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253.588.2399

밸뷰 뮤직 아카데미

- ▶노래교실&동호회 - 음치도 박치도 괜찮다! 함께 즐겨요!
- ▶통기타 강의 - 초보: 실력에 맞춘 강좌.
- 중급: 악보없이 기타칠 수 있습니다.
- ▶드럼 - 스트레스 날릴 파워풀한 리듬!
- ▶K-POP - 프로 아티스트 트레이너
-YG,PSY,김범수,성시경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

206-306-6108

차량 판매

2020년 형 렉서스 RX450h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합니다.
원래 오너가 곱게 탄던 무사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타이어
새것으로 교체한지 1주일밖에
안 됐음. 색깔은 흰색

206.670.8654

차량 판매

2014년 형 렉서스 CT 200h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합니다.
원래 오너가 곱게 탄던 무사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색깔은 빨간색

206.670.8654

구인

H-mart Tacoma 구인
지원자격: 국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지원부서: Cachier, Grocery, Deli
근무조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점심 제공

(425) 312.4588

최첨단 페이스/바디케어 미용장비 판매

1. SMART Line Skin Care. 7-in-1
Skin scrubber, Lonto Phoresis, Y Lifting, Ultral Sound, Cryo
2. E-Trans system/Magic pot. 최첨단 리프팅기기
트리플라 열에너지, 초강력 앤돌로마자 시스템,
부이 빙 블루 레드 칼라 테라피

503-957-3821

Shin's Wellbeing Food

shinswellbeingfoods.carrd.co
김치 Specialist
무설탕, NO MSG, 한국 고추가루 사용
천연재료만으로 맛을 낸 밑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김치 배달합니다.

206-887-3088(카톡주문 가능)

무료상담

편안한 집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민생활과
가정, 자녀, 신앙 등에
관한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253-503-9984

주유소 파트타임

(주 3~4일)
일하실 직원분 구합니다.
디모인스
(Sea Tac 근처)지역
(전화, 문자)

206-334-7532

한국식당 장비판매

바베큐 테이블 set 신제품 20개
(마블10개/ 채리10개),
냉면 육수 냉장고, 스시 케이스 5ft,
파저리 기계, 등..
한국바베큐식당에 필요한것
모두 있습니다.

253-754-5243

공항 Pick Up

공항 Pick Up 또는
라이더 필요하신분
어디든지 갑니다

253-337-7209

구인

한국어/영어 구사 가능한
리걸 어시스턴트 구함
401k 및 건강보험, PTO 제공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이력서 보낼곳:
Justin@parkchenaur.com
(박쉬나 법률)

253-839-9440

렌트

벨링햄
방 한개만
사용할 학생
\$800/월

(253) 334.6078

안쓰는 물건 치워드립니다

운반, 창고 정리, 유품정리,
폐기물처리(수거비) / (대형트럭)
금, 은, 보석 무료감정, 시세매수

253-222-9822

방 렌트

씨택 공항 근처
렌트비: 750불(유틸리티 포함)
남학생, 직장 다니시는 분 환영.
금주, 금연하시는 분 환영

206-679-9208

간병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청소/요리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라이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항시 남/여
일할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53) 571.8080

로맨틱 소개팅 (결혼정보)

당신에게 맞는 짝이 있습니다
커플메니저가 좋은 만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253) 571.8080

뷰티 서플라이 일하실 분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실 분
경험자 우대
full or part time

253 228 4727 / 504 444 7453

룸 렌트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캐쉬어/세일즈/창고
직원 원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이메일 : twin0418@aol.com

(253) 582.2975

스페이스 리스

스노컬미 마켓 Empty Space 렌트
스노컬미역 바로 앞/스노컬미
폭포 관광지에서 1마일 / 커피, 빵
스무디 등의 비즈니스에 적합
Set - Up 공사기간 3개월
FREE Rent, 1,895 Sqft
렌트비 : \$3,947+ NNN

(206) 496.7060

하우스방 렌트

켄트 골프코스 뒷문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가
하우스방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253-374-0458

박스광고 \$80/4회 206-779-5382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눈 깨풀 + 눈 밑 쳐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얼굴 쳐짐(목 쳐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모두를 위한 신문

MS MEDIA GROUP CORP.

미디어
한국 스포츠서울USA 우먼즈



발행인 박재영
편집인 박재영

전화 206.779.5382 31411 6th Ave S
ads@mhanook.com Federal Way, WA 98003

스포츠서울USA
Sports Seoul SEATTLE
오리건타임스
The Oregon Times

Media Hankook is published by MS Media Group, Corp. 33110 Pacific Hwy S. #8 Federal Way, WA 98003, on every Friday. Subscription rate and the monthly delivery rate in most areas are \$15/month for minimum 4-day services per month.

미디어한국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구독료 150달러를 체크나 머니오더, 또는 크레딧카드로 신청하시면 매주 정기적으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MS Media Group Corp.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광역시애틀한인회

GREATER SEATTLE KOREAN ASSOCIATION

신뢰받는 메신저,
소상공인을 위한 알림이 시애틀한인회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

Supported by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워싱턴주 상무부 소상공업반등네트워크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의 파트너

“코비드로 인해 타격받은 워싱턴주 소상공업의 회복과 번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공평하게 지원합니다. 특별히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듯한 사각지대에 계신 동포 소상공업체에게 현사업 운영에 관련된 간단한 번역, 조언과 기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연계 기관과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206-669-2578



식당 매매/렌트/컨설팅

Cell : 253.941.4989

wonlee@metrospi.com



이원규

▶ Business

- 1. 테리야끼 \$160,000 / 렌트 \$2,700 일매상 \$1,800 / Marysville
- 2. PENDING
- 3. 테리야끼 \$90,000 / 렌트 \$3,000 일매상 \$1,200 / Lakewood
- 4. 테리야끼 \$180,000 / 렌트 \$2,800 일매상 \$1,800 / Everett
- 5. SOLD
- 6. 테리야끼 \$160,000 / 렌트 \$3,500 일매상 \$1,800 / Kent
- 7. 테리야끼 \$150,000 / 렌트 \$5,300 일매상 \$1,500 / Everett
- 8. PENDING
- 9. 일본라멘 \$100,000 / 렌트 \$4,250 일매상 \$1,300 / Monroe
- 10. 중식당 \$250,000 / 렌트 \$3,800 일매상 \$2,200 / Seattle
- 11. 한식당 \$180,000 / 렌트 \$3,800 일매상 \$1,800 / Gig Harbor
- 12. PENDING
- 13. 한식당 \$180,000 / 렌트 \$10,000 일매상 \$3,000 / Kent
- 14. 일식당 \$180,000 / 렌트 \$3,700 월매상 \$60,000 / Federal Way
- 15. PENDING
- 16. \$130,000 / 렌트 \$3,200 월매상 \$60,000 Shoreline
- 17. \$650,000 / 렌트 \$4,700 월매상 \$140,000 / Lakewood
- 18. \$650,000 / 렌트 \$9,500 월매상 \$120,000 / Bellevue
- 19. \$650,000 / 렌트 \$10,500 월매상 \$120,000 / Gig Harbor
- 20. \$180,000 / 렌트 5,000 월매상 \$50,000 / Issaquah

▶ Rental Property

- 16. 4 Unit \$859,000 / 건평 2,700 Sf
년인컴: \$ 60,000 / Federal Way
- 17. 4 Unit \$ 899,000 /건평 3,000 Sf
년인컴: \$42,000 / Federal Way
- 18. 4 Unit \$799,950 / 건평 2,700 Sf
년인컴: \$48,000 / Kent
- 19. 4 Unit \$980,000 / 건평 3,800 Sf
년인컴: \$58,000 / Seattle
- 20. 6 Unit \$1,200,000 /건평 3,250 Sf
년인컴: \$75,000 / Auburn
- 21. 4 Unit \$900,000 /건평 2,200 Sf
년인컴: \$58,000 / Kent
- 22. 8 Unit \$ 1,725,000 건평 8,300 Sf
년인컴: \$120,000 / Kent
- 23. 4 Unit \$1,300,000 건평 3,800 Sf
년인컴 \$71,000 / Lynnwood
- 24. 6 Unit \$1,900,000 /건평 6,000 Sf
년인컴 \$100,000 / Everett
- 25. 6 Unit \$1,450,000 건평 5,000 Sf
년인컴 \$70,000 / Tac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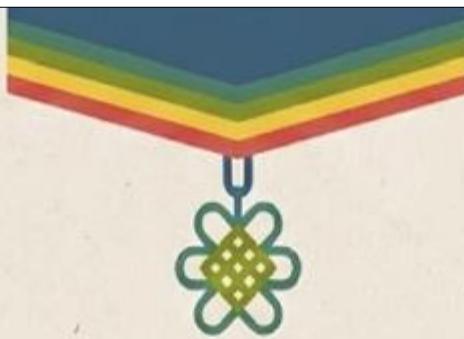
▶ Lease

- 26. PENDING 건평 1,900 sf /렌트 \$8,000
문닫은 식당 / Mill Creek
- 27. 커피숍 건평 1,180 Sf 렌트 \$6,200
문닫은 커피숍 / Mill Creek
- 28. 식당 건평 3,000sf / 렌트 \$8,000
단독건물 햄버거 / Bremerton
- 29. 일식당 일식당 건평 2,000 Sf 렌트 \$5,000
문닫은 일식당 / Des Moines
- 30. 식당 건평 1,260 Sf /렌트 \$5,700
미국식당 시설완비/Queen Anne

K-Food Franchise

프랜차이즈 창업 E2 투자자 모집

謹賀新年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모든 소망 다 이루시고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시애틀 이북5도민회

회장 일레인 권 및 임원 일동 드림

福



재미국대한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in U.S.A.

謹賀新年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이원규



신년사 (2026년 丙午年)

사랑하는 270만 미주 동포 여러분, 그리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원여러분, 희망과 도약의 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며 미주 한인사회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11월3일 15년만에 치루어진 선거는 48년 미주총연 역사상 가장 평화적, 민 주적인 방법으로 진일보한 선거였으며 특히 경선을 통해서 재임에 성공한것은 고 이민휘 총회장님 이후 30년만에 경선에 의해 재임에 성공하게된 것으로, 부족한 저로서는 더없는 영광과 더불어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역사에 새로운 장을 만들어 나아가는 퀘거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각 지역 한인회와 단체, 그리고 수많은 동포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토대도 튼튼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총회장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와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은 우리 750만 재외동포 시대를 맞아, 우리270만 미주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과 정체성 강 화가 더욱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270만 미주 한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안, 한인 2·3세 차세대 리더십 육성, 그리고 주류사회와의 연대 강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31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거국적 공약 실천 위원회의를 구성 실행에 즉시 옮길 것입니다.

하나, 더 단단한 재정 자립도 확립, (*Establishing a stronger financial independence*)
둘, 더 국건한 한미동맹,한미정치 교류확대, (*A stronger ROK-US alliance and politics*)
셋, 더 든든한 권리 보호 와 권리신장, (*Stronger promotion of Koreans' rights and interests*)
넷, 더 넓은 동포사회 통합, (*Integration of the broader Korean community*)
다섯, 더 밝은 차세대 미래, (*A brighter future for the next generation*)
여섯, 더 주류사회위상 적립과 꿈나무육성, (*Nurturing promising young people*)
을 목표로 2026년에도 한 걸음 더 성큼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 현 한인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동포사회의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함께할 때 가장 강합니다. 새해에도 미주 한인사회가 하나로 뭉쳐 더 큰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동포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January 1st, 2026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서 정 일 올림

엠마부동산



고객님에게 맞춤으로 비즈니스를 매칭시켜 드립니다.

NEW

South Cafe 자리 8만불

- ▶ 카페 여실 수 있는 자리
- ▶ 후드는 없습니다.
- ▶ 렌트비 한달 1000불 +NNN

NEW

식당 자리

- ▶ 10,000불
- ▶ 후드 및 그릴 등 식당장비 있음
- ▶ 식당경험 있으신분만 가능

South 햄버거 15만불

- ▶ 메뉴 추가하면 매상 증가할 포텐셜있음
- ▶ 현재 주인이 일하고 있지않음

한식 요리 가능하신 분!

- ▶ 한식요리에 자신있으신 분에게 좋은 기회 매물 있습니다
- ▶ 남의 밑에서 일하지마시고 소자본으로
한식당 사장님이 되실 수 있는 절호찬스

엠마
부동산



좋은 매물이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고객님께 맞춤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mma Park 206-688-0780 | Emmapark0780@gmail.com

H MART**7
DAYS
SALE****JAN 2ND - JAN 8TH, 2026****일주일 내내 매일할인 (야채부/정육부는 4일만 진행)**WWW.HMARTUS.COM

2026을 여는 혜택 신년 특가전

행운이 가득한 복스러운 식탁을 함께하세요



**그린한상
2종 왕만두** **798 EA**

ONLY 4 DAYS 금 토 일 월



**SUPREME
마사고** **6.98 PK**



**1.5kg 한국
샤인머스켓** **19.98 BOX**



**레몬랜드
코다리강정** **6.98
6 PK**

ONLY 4 DAYS 금 토 일 월



**QUALITY
1
USDA** **생찜갈비** **9.98 LB**



**2.2LB 오리
5종 액상차** **5.98 EA**

PRODUCE SALE 야채

ONLY 4 DAYS 금 토 일 월



스모만다린 **11.98 BOX**



골든 레드키위 **4.28 PK**



**황도/황천도
복숭아** **3.48 LB**



히니 레드포멜로 **16.98 BOX**



아보카도백 **2.98 BAG**



네이블오렌지 **1.08 LB**



**비프스테이크
토마토** **1.28 LB**



한국고추 **1.98 LB**



복이버섯 **3.48 PK**



주키니 **0.78 LB**



팽이버섯 **1.48 EA**



적/청상추 **1.48 EA**

MEAT DEALS 정육

ONLY 4 DAYS 금 토 일 월



**앵거스초이스
주물럭 갈비살** **15.98 LB**



**앵거스초이스
우삼겹 샤브** **8.48 LB**



**빼있는
아롱사태** **5.48 LB**



**Half Cut
생 삼겹살** **6.48 LB**



**돼지목살
불고기** **5.48 LB**



돼지 등갈비 **5.48 LB**

Available at HMART and GMART except the 2nd & Pine and UW Seattle store. Valid while supplies last. Quantities limited to stock on hand. Images may not be the same as shown. Copyright © H-MART corp. All Rights Reserved. 본 프로모션은 HMART와 GMART에서 적용되며, 2nd&Pine

GROCERY DEALS 식료품

Items & Prices:

- 하옹 촌쌀 (22LB) 21.98 BAG
- 三水甲山 현미 (15LB) 9.98 BAG
- DAIFUKU 참기름 캔 (56oz) 14.98 EA
- 생돌김이 (12pk/5g) 4.98 EA
- 버섯 불고기 (600g) 8.98 EA
- 토막갈치 (220g) 9.98 EA
- 햇반김반 (165g~280g CJ) 2.98 EA
- Buldak Fried Rice (440g) 4.98 EA
- 불닭 볶음밥 (400g) 3.98 EA
- 스케이프 피자고지 (296g) 3.48 EA
- 포켓 누룽지 (429g) 5.98 EA
- 찰옥수수 (3pcs/1LB) 2.98 EA
- JIN 진라면 (18pk/120g) 13.98 BOX
- 辛 투바 (4pk/137g) 6.98 EA
- 신라면 투바 (6pk/75g) 6.98 BOX
- 순라면컵 베지/김치 (1kg) 3.98 EA
- Select 코코넛 크림 (400ml) 0.98 EA
- 윤빵 (6pcs/270g) 6.98 EA
- 마메이드슈 (8pk/150g) 2 FOR 5
- PEELED ROASTED CHESTNUT (100g) 1.00 EA
- 포카리스웨트 (1.5L) 3.48 EA
- 참단무지 (2.6kg) 5.98 EA
- 돼지콘 (5pk/160ml) 5.98 EA
- 카스타드 (12pk/23g) 4.98 EA
- 몽쉘 (12pk/32g) 4.98 EA
- 오징어 땅콩 (202g) 2.78 EA
- 바이오플 3종 요구르트 (25pk/63ml) 3.48 EA
- 모찌 (7.4oz) 3.48 EA
- 들봄 막걸리 (750ml) 3.98 EA
- 멀티 카스타드 (12pk/23g) 4.98 EA
- 동생Dream cake (12pk/32g) 4.98 EA
- 오징어 땅콩 대형 (202g) 2.78 EA
- 스낵 4종 (132g~230g) 3.28 EA
- 모찌 (7.4oz) 3.48 EA
- 들봄 막걸리 (750ml) 3.98 EA

SEAFOOD SALE 수산

Items & Prices:

- SEATRUST 절단 코다리 (1kg) 7.48 PK
- 제주 은빛갈치 (수협) 7.48 PK
- SEABIRD 세발낙지 (200g) 3.68 PK
- 청해거상 전복 (6oz) 10.98 PK

DELI SPECIALS 반찬

Items & Prices:

- 오징어초무침 (165g) 3.98 PK
- 고구마맛탕 (120g) 3.98 PK
- 마늘쫑무침 (120g) 2.48 PK
- 못난이영양떡 (120g) 2.98 PK

KITCHEN & HOME DEALS 생필품

Items & Prices:

- 헬로키티 친공수저 케이스세트 슬림 (릴팡) 17.48 EA
- 세프웨어 하디밀폐 클리어+직사각 (7.4L) 15.48 EA
- 일본 첫가락 세트 (10p) 12.98 EA
- 순삼 주방세제 리필 (1L) 6.28 EA

NEW ARRIVAL SUPER SALE

비비고 세븐틴 상은 떡볶이 4종

엘에이푸드 모노셰프 사누끼 우동면

MONO CHEF 사누끼우동면 (讃岐うどん)

TEEK BOKKI 티크복기 (티크복기)

OPEN
365 DAYS
8AM - 9:30PM

MORE DEALS IN-STORE!
VISIT YOUR
NEAREST LOCATION

THIS SALE ALSO APPLIES AT LYNNWOOD GMART.

Federal Way Lynnwood Tacoma Bellevue
Redmond Ballard Gmart (8am - 9pm)

UW and Seattle (2nd & Pine) stores are excluded from the sale.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시애틀 No.1 한인 여행사
드림투어
206.200.3113
주소: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OK Handyman
페인트 · 보일러 · 펜스
데크 · 각종 집수리 등
Cell 206.306.6700 | 206.779.5382
Email skgid7700@gmail.com

연금저축보험 / 대학자금 / 일반연금 / 암보험
조요셈 종합보험
자동차 사업체
주택 생명보험
문의 253.459.9800
개인별 맞춤설계 / 회사별 비교견적 / 신속상담

최고 실력, 최고 부품사용 개런티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비 서비스!
One Stop 그린우드 종합정비 **Tony's** 그린우드 오토바디
Tel. 206-706-2778
8208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03

20년의 경력과 한결같은 성실히 일하는
김연정 부동산
YON KIM Managing Broker
Best Choice
253.227.6673
yon@bestchoicerealtywa.com

주방장 구함



"안녕도 못한 채 떠난 에디 장로님"

고 박찬영 장로 천국환송예배 지난해 27일 타코마중앙장로교회서 열려
"예수님 위해 불꽃처럼 살다 간 분" 이형석 목사 설교로 유가족 위로

지역 사회와 교회에서 신실한 신앙인이다 헌신적인 일꾼으로 사랑받았던 고(故) 박찬영 장로의 천국환송예배가 27일 엄숙하게 거행됐다. 4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박 장로는 지난 12월 19일 금요일 저녁, 두 아들과 함께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저녁 식사를 꾸며한 뒤 집으로 가던 중 레이시 마빈 로드에서 발생한 도로 분노 충격 사건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떠났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친절하고 성실한 메디케어 전문"
메디케어 상담전문 **이영이 보험**
206.407.8478
youngyi712@gmail.com

광고 문의 **206.779.5382**

패티임 보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운퇴준비, 노후계획 무료상담
253-632-8904
생명보험/은퇴플랜/401K 롤오버/메디케어
E-mail : girlpatti1@gmail.com

가정 의학 / 소아과 / 부인과 / 노인과 / 내과 / 청진 건강 / 응급 치료 / 각종 예방 접종
채정희 클리닉
ADVANCED FAMILYCARE MEDICINE
모든보험 | 스킨케어
원격진료(Virtual Care) 가능
"10여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진료해드립니다."
☎ 253-314-5742 레이크우드 부한플라자 내에 위치

ANIMAL CLINIC OF BENSON
종합 동물병원

253.852.6330
10700 SE 208th St #204 Kent, WA 98031

K-beauty
FIND YOUR BEAUTY
화이트 태닝 Red Light Therapy
피부에 조명을 켜다!!
페더럴웨이점 206-670-8654
린우드점 425-561-7866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친절한
김양미 보험
메디케어전문
미현간의원
통역경력
☎ 206-679-8301
✉ getcare8282@gmail.com

Peking Garden Chinese Restaurant

북경가든

여기!

맞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짬뽕과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집



예약/주문
253.588.2399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9701 So. Tacoma Way #115 Lakewood, WA 98499



J&J 세무회계법인 로펌

" 커피 한 잔 값까지도 절세 "

작은 비용까지 쟁기는 꼼꼼한 절세

" 회계사·변호사 동시 무료 상담 "

각종 서류·계약·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비

"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파트너 "

비즈니스 셋업·서류 업무, 추가 비용 \$0

비즈니스 전문

절세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들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201 PACIFIC AVE 600, TACOMA, WA 98402
OFFICE: 253 400 7586 / 253 203 3137(8)

김수영
206.999.7989
sykbellevue@gmail.com

Designate Broker

“이사철의 계절, 집 장만의 계절”

주택◆커머셜 (호텔.모텔.주유소.투자성건물)◆사업체EB-5 (투자이민)◆E2 (소액투자)◆부동산관리◆워싱턴주내 별장

Bainbridge Island 상가건물 & 61,855 sf. 상가건물건축 가능한(NSC)대지

\$1,960,000



- ▲ 건물 6,000sf · 대지 61,855sf(1,738평) ▲ Fully occupied, gross \$20 매우
낮은 월세 ▲ 동네 유일 성업중 그로서리 ▲ 주차 43대 가능 ▲ 20년 영업 유명 이태리언
식당 ▲ Upholstery 및 주차장 수입 포함 ▲ 현재 월 렌트 \$9,200 (곧 대폭 상승 예상)
- ▲ 요지 사거리 중심 Mixed Use Zone ▲ 상가·사무실·콘도·Storage 개발 가능
- ▲ 유입인구 증가, 미래 투자성 높은 부동산 ▲ 우체국·법원·교회 인접 중심지

에버렛 다운타운 노른자위
장소에 자리잡은 커머셜 건물

\$1,190,000

2,850
스퀘어피트

- ▲ 에버렛 시청·법원 앞, I-5 인접 ▲ 월매상 \$4
만~4.2만 퓨전 한식당(건물 포함) ▲ 세련된
인테리어·최신 장비 ▲ 100만불 이상 리모델링·
후드 2개·신식 주방 ▲ 한식·일식·카페 등 다목적
활용 ▲ UW 카페 10곳 납품 ▲ 2인 가족·파트너
운영 최적 ▲ SBA 융자(20% 다운)·E-2 비자 가능
▲ 광고·배달·온라인 주문 확장 ▲ 소비자 평점 4.8

방2, 화장실 2, 차고 1



Dupont 타운 홈

\$359,000 매매

- ▲ Fort Lewis 정문 5분 거리 ▲ 방 2, 화장실 2,
차고 1, 데크 포함 (1,020sf) ▲ 밝고 깨끗한 구조
- ▲ 공원과 트레일 인접, 탁 트인 전망 ▲ 양옆에
다른 유닛 없는 독립형 구조 ▲ 월 임대수입
약 \$2,300 예상 ▲ I-5, 아마존, Dupont 시내
접근 편리 ▲ 세련되고 효율적인 콘도 구조



김수영 부동산 전속 협력회사 임원들과 함께

**강력한
협력팀**

- 융자팀: 주택융자·비영주권자 융자·상업 융자
- 전문 사진사
- 스테이징 서비스
- Property management 자매회사
- 핸디맨/건축회사
- 헬리ックス/Helix Real Estate

김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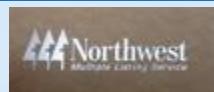
253.651.3778
khkhelix@gmail.com



Designated Broker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인 협회 2018 회장
sykbellevue@gmail.com

김수영
부동산
주택 | 커머셜 | 사업체

206.999.7989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인 협회
WA Korean Designated Brokers Association

1085 103rd Ave NE Bellevue, WA 98004

최신 리스트инг과 정보는 sueyoungkim.com에서 확인하세요

E2 비즈니스 를 찾고 계신가요?

아직도 힘들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신분유지로 억지로 하시지마시고 E2 비즈니스에
최적 매물을 만나보세요.
학생비자에서 E2 비자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엠마
부동산

좋은 매물이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고객님께 맞춤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mma Park 206-688-0780 | Emmapark0780@gmail.com

“K-컬처 더욱 깊이 스며들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마존, 보잉 등 글로벌 기업이 포진한 혁신의 최전선이자, 한미 경제·기술 협력의 심장부입니다. 총영사관은 이곳 시애틀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전진기지로 삼아, 바이오, 우주항공, AI, 클린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

‘K-이니셔티브’의 성공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건국 250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현지 사정에 정통한 동포 여러분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여러분이 뒤에 놓으신 기반 위에, 대한민국의 경제적·문화적 역량이 더해질 때 우리는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동포 기업인, 과학자, 그리고 차세대 인재들이 이 거대한 흐름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기회의 문을 넓히겠습니다. K-푸드와 K-컬처가 현지 사회에 더욱 깊이 스며들어, 이것이 곧 동포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자금으로 연결되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북미 동포 여러분,

2026년은 ‘함께 성장하는 동포 사회’, ‘대한민국과 함께 뛰는 서북미’를 만드는 해가 될 것입니다. 총영사관은 언제나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동포 사회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적토마의 기운처럼 시원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 서은지 드림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賀新年

MS Media Group
대표 박재영 외 임직원 일동

“동포분들과 함께 걷는 길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며,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역시앤틀한인회는 문화와 예술로 마음을 잊고, 봉사와 나눔으로 신뢰를 쌓으며, 차세대에게는 뿌리와 날개를 함께 전하는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변방의 이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입니다. 시애틀 속의 한인사회가 품격과 책임을 갖춘 공동체로 기억되도록 저부터 낮은 자세로 걸어가겠습니다.

새해에는 각자의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가정마다 웃음과 평안이 머물며, 우리 커뮤니티가 서로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광역시앤틀한인회 회장 김원준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
haninsosik.com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며”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동포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따뜻한 연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코마 한인회는 새해에도 다민족 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차세대와 함께하는 한인회, 모두에게 열린 한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새해 아침

타코마 한인회 회장 임경 드림

“긍정적 변화 스며들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2025년에 이루어진 정권교체는 우리에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이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으로 불안하고 불확실했던 과거를 벗어나 안정적인 정책과 외교,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우리들의 터전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국의 새로운 희망이 동포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힘과 기회를 가져다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포여러분, 2026년은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 나가는 해입니다.

붉은 말처럼 힘차게 뛰어 우리 폐더럴웨이 한인회가 새로운 정부에서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동포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고 여러분의 노력이 정당한 결실을 맺는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 한인회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을 뒤로하고 고국의 새롭게 열린 기회의 시대가 이곳 동포사회에 적응되어 폐더럴웨이 한인회의 새로운 번영과 서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페더럴웨이 한인회 회장 류성현

“함께 뛰는 경제, 든든한 동포 사회”

우리 상공회의소는 올해 ‘함께 뛰는 경제, 든든한 동포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실질적인 가교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시장에서 당당히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차세대 경제인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한인 특유의 저력으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준다면, 그 어떤 파고도 훌륭히 넘어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한인 경제인들이 서로의 성공을 돋는 따뜻한 동행을 통해, 워싱턴주 한인 사회가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도약하는 한 해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동포 여러분의 얼굴에 활기찬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번영과 건승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제36대 회장 오명규

“지역과 세대 아우르는 화합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동포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서북미 5개주 한인사회는 더욱 굳건해졌으며,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의 길 또한 함께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서북미연합회는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중심으로서, 서북미 5개주 동포시회의 권의 신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연대를 바탕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미래에 희망과 품격을 전하는 한인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도약과 결실의 해가 되어 여러분의 삶과 가정마다 축복과 기쁨이 풍성히 넘치기를 바라며, 서북미 5개주 한인동포 여러분 모두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

미주한인회총연 서북미연합회 회장 조기승

“활기찬 도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포사회는 절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동포 단체들이 의미 있고 역동적인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주시애틀총영사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서북미 동포사회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동포들의 권익은 실질적으로 신장되었고, 미주류사회 속에서 한인회의 위상 또한 분명히 높아졌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해를 맞아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은 흔히 ‘붉은 말의 해’로 불리며,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한 해라고 합니다. 동시에 빛과 기쁨을 상징하는 불의 에너지가 강한 시기인 만큼, 이 긍정의 기운이 동포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져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담대하고 활기찬 도전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서북미 동포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비전이 태동하고, 세대와 이념, 직업과 배경을 넘어 서로를 잇는 연대의 힘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손을 맞잡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새해, 동포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희망과 용기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1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 회장 황규호

“2세들 정체성 잃지 않도록 책임 다하겠습니다”



2025년을 보내며 이제 희망의 2026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워싱턴주 한인 사회는 묵묵히 삶의 자리 를 지켜내며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희망의 불씨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며 자신의 뿌리를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현신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교사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 힘을 보태주신 수많은 동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오늘의 한인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고 있습

니다.

희망은 서로를 향한 격려의 말 한마디, 다음 세대를 위한 작은 실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2025년을 지나며 우리가 다시 확인한 가장 큰 힘은 바로 함께 견뎌내고, 함께 미래를 그려온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선택의 순간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간다면 어떤 길에 서도 희망은 만들어진다는 것을.

워싱턴주 한인 사회의 저력은 바로 이 신뢰와 연대 속에 있습니다.

재미한국학교 서북미 지역협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한인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을 함께 견뎌낸 모든 워싱턴주 한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웃음과 희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손길이 우리 공동체 곳곳에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 회장 윤세진 드림

“서로의 걸음을 존중하며 함께 가는 새해 되기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워싱턴주 한인 여러분, 희망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키워왔습니다.

2026년은 말의 해입니다.

맡은 속도보다 방향을 알고, 혼자 달리기보다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 온 존재

입니다.

새해에는 앞서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을 지키는 지혜와 혼자 서는 힘보다 서로를 살피는 공동체의 가치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워싱턴주 한인 사회는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연대의 힘으로 오늘을 만들어왔습니다.

새해에는 가정에는 평안을, 일터에는 활력을, 우리 사회에는 신뢰와 배려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걸음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1일

서북미문화협회 회장 김미선 드림

“교육과 문화 가치 확산하는 동반자로 책임 다하겠습니다”



을 키워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여주신 관심과 지지는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새해 2026년에는 단체장님과 소속 단체 위에 건강과 번영, 그리고 더욱 풍성한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교육과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 이사장 조승주 드림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결코 혼자가 아닌 ‘함께’ 견너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더 나은 커뮤니티의 길을 함께 모색해 온 여러분의 실천과 마음은 우리 한인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연대와 책임 의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해 2026년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고, 멈추었던 꿈이 다시 움직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빌거리를 모여,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한인생활상담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서 함께하며,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청소년과 청년, 이민 초기 가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이 존엄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서로를 향한 신뢰와 연대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한인생활상담소 소장 김주미 드림

“미주 한인의 날의 공적 위상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미주 한인의 날을 함께 기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2026년 새해를 맞아, 워싱턴주 미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 이사장으로서 동포 여러분께 진심 어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축제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미주 한인의 날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공공 행사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재단의 운영 원칙과 행정 체계를 점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재단 운영의 안정화를 넘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명확한 의사 결정 구조, 책임 있는 재정 관리, 그리고 차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주 한인의 날이 해마다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부 및 지역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미주 한인의 날의 공적 위상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축제재단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될 때, 현장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을 한인 사회 전체의 이익과 신뢰에 두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그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성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전통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 이사장 김성훈

“서로의 성장 돋는 신뢰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과 한인 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워싱턴주 지역 한인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도전이 공존하는 이 시점에, 세계 한인무역협회(OKTA) 시애틀지회장으로서 지역 한인 경제인 여러분과 동포 사회에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인 기업과 경제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공급망 재편,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는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OKTA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회원 여러분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시애틀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워싱턴주

및 오리건 지역의 한인 기업 간의 협력 강화는 물론,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무역·투자 교류 확대, 그리고 차세대 경제인 육성에 힘써 왔습니다.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만남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일하는 OKTA, 성과를 만드는 OKTA’를 지향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회원 중심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원,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연계, 그리고 차세대 무역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애틀이라는 지역적 강점을 살려, 첨단 산업과 물류, 기술 기반 무역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회장으로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회원 한 분 한 분의 필요가 OKTA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OKTA는 단체의 이름을 넘어, 서로의 성장을 돋는 신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사업과 도전에 더 큰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애틀지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1일

세계한인무역협회 시애틀지회 회장 김필재

謹賀新年

2026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요

MS Media Group 대표 박재영 외 임직원 일동



謹賀新年 2026

병오년
(丙午年)

새해
福 路이
발우세요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한인회

FEDERAL WAY KOREAN AMERICAN ASSOCIATION, WA

P. O. BOX 3093 FEDERAL WAY, WA 98063

회장 류성현·이사장 고경호 및 임원·이사 일동





희망찬 새해, 새로운 시작

2026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한인생활상담소를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새해를 맞아 더 큰 도약을 위해
Lynnwood Neighborhood Center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다가가려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걸음에 정성껏 동행하는
한인생활상담소가 되겠습니다.

희망
복 많아
받으세요



한인생활상담소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 새 주소: 19509 64th Ave. W. Suite 270, Lynnwood, WA 98036
- 전화: 425-776-2400
- 웹사이트: www.kcsc-seattle.org



허만 법률 그룹

3대를 이어온 변호사 가문

창립자 Karl Herrmann(1915-1997) : 전 상원의원 및 보험위원



“고객 한분 한분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교통사고 전문 허만 법률 그룹

**사고로 다치셨습니까?
저희가 곁에 있습니다**

창립70년이 넘게, 저희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해 왔습니다.

고객을 위한것이라면 작은일도 크게보는 변호사
오늘도 고객만을 생각하는 변호사 찰스허만이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시애틀 · 타코마

페이지 리 (Paige K. Lee)
Cell: 206.773.8180
Direct: 206.492.7722
Fax: 206.492.7723
E-mail: paige@hlg.lawyer

교통사고

- 각종 상해사고/ 목허리부상
- 부당한 죽음/ 보행자 사고
- 뇌손상 사고/ 낙상사고
- 오토바이 사고/ 비행기 사고
- 제조물로 인한 상해



시애틀 · 타코마

줄리 황 (Julie Hwang)
Cell: 206.409.4611
Direct: 206.457.4200
Fax: 206.457.4201
E-mail: julie@hlg.lawyer

www.hlg.lawyer

시애틀 사무실

505 5th Ave. S, Suite 330 Seattle, WA 98104

T_206-625-9104

F_206-682-6710

타코마 사무실

1535 Tacoma Ave. S. Tacoma, WA 98402

T_253-627-8142

F_253-627-1835

올 부동산 (RealtyAll.com)

since 2002 Year



주택/아파트/상가/모텔/호텔/주유소/그로서리/식당/세탁소/각종 사업체/땅/부동산 건물 관리
고객 여러분의 귀중한 자산을 늘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6.228.4989
도병호
대표 Broker
Brian Do
briando@realtyall.com



253-205-5553
도은영 Monica Kim
eunnyoung@gmail.com

**가격 \$6,200,000**

Everett 66 Unit 모텔
빌딩 19872 Sq.Ft / 대지 42253 Sq.Ft

가격 \$8,500,000

2024년 매상 \$2백만
NO PIP

NEW**가격 \$4,800,000****SOLD**

가격 \$649,950
Federal Way / 방 3개 / 화장실 2.25 / 1870 Sqft

MOTEL 모텔	LISTING NO	YEARLY SALES	UNITS	PRICE	AREA	STATUS
	M0125	\$1,100,000	50+	\$5,900,000	CLALLAM	ACTIVE
	M0225	\$1,161,000	50+	\$6,000,000	KING	ACTIVE
	M0325	\$1,000,000	50-	\$4,200,000	GRAYS HARBOR	ACTIVE
	M0425	\$2,320,000	50-	\$13,500,000	KING	ACTIVE
GAS STATION 주유소	LISTING NO	GROCERY /MONTH	GAS GAL /MONTH	PRICE	AREA	STATUS
	GS0125	\$80,000	50,000	\$4,300,000	THURSTON	ACTIVE
	GS0425	\$60,000	40,000	\$2,800,000	SNOHOMISH	ACTIVE

▶ 올부동산과 함께할 에이전트(Broker)를 모집합니다.

김 원현	206-370-2382	이 은영	206-377-9192	HANNA LEE	253-365-8324	KIM,JONG G	206-852-9855
이 순열	253-335-1965	이 덕기	206-229-7407	이종성	509-863-6212	KIM,MYUNG JOON	206-228-4989
제니퍼 오	206-228-0591	KIM, ARTHUR J	206-859-9988	김용규	206-335-8949	KIM, LOUIS	253-722-3067
이 내권	206-793-0822	KIM, VERONICA	206-436-4989	부진실	253-905-2772	TERRY CHOI	213-220-7220
이 영철	253-777-6714	황 인성	206-306-4336	김강식	206-949-6197	조 해경	425-761-1469
정 정이	206-200-1444	엠마 박	206-688-0780	ROBERT KIM	253-576-3939	www.realtyall.com 에서 리스팅을 확인!	

워싱턴주 비닐봉지 금지 4년...플라스틱 쓰레기 줄지 않아

- ▶ 워싱턴주립대 연구 "새 봉지, 기존보다 4배 두꺼워"
- ▶ 봉지 사용 50% 감소했지만 78% 줄어야 플라스틱 총량 감소
- ▶ 내년 봉지 가격 12센트로 인상...사용량 감소 효과 주목

워싱턴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금지했지만 쇼핑백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립대가 주 정부를 위해 작성한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8센트 유료 플라스틱 봉지를 충분히 재사용하지 않아 봉지의 두께 증가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새 봉지는 교체된 얇은 버전보다 4배 이상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며, 연구에 따르면 쇼핑객들은 환경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최소 7번 이상 재사용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2021년 일회용 비닐봉지를 금지하고 매장에서 더 두꺼운 플라스틱 및 종이 봉지를 8센트에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과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금지 조치 이후 봉지 사용량은 50% 감소했다. 그러나 연구는 플라스틱 총량을 실제로 줄이려면 약 78% 감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소매업체와 재활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업계 데이터, 스캐너 데이터를 활용했다. 다만

플라스틱 무게 관련 결과는 한 주요 봉지 유통업체의 수치에 의존했다. 생태부 대변인 앤드류 위니키는 엑시오스에 "연구가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제한된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 전체 사용량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니키는 또한 워싱턴주의 봉지 법이 무게 기준 플라스틱 총량 감소 외에도 여러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투기 감소, 재활용 오염 방지, 쇼핑객들이 자신의 봉지를 가져오도록 장



[사진=신문사DB]

려하는 것 등이다. 그는 "자신의 재사용 가능한 봉지를 꾸준히 가져오는 것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워싱턴주 매장과 레스토랑에서 플라스틱 봉지 가격이 4센트 인상되어 12센트가 될 예정이다. 이 가격 인상이 봉지 사용을 억제할지 주목된다.〈시애틀코리안데일리〉



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

김원현 Won Kim
206.370.2382
wonkim1974@hotmail.com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Grocery

1. 테리야끼	\$690,000	일매상: \$4,000
2. 테리야끼	\$530,000	일매상: \$3,500
3. 테리야끼	\$230,000	일매상: \$1,700
4. 테리야끼	\$280,000	일매상: \$2,300
5. 테리야끼	\$180,000	일매상: \$2,000
6. 테리야끼&Sushi	\$50,000	일매상: \$1,000 (Owner Carry 가능)
7. 테리야끼 (부동산포함)	\$830,000	일매상: \$2,200

상가 건물
\$1,200,000 CAP: 7%

Motel
\$1,750,000 Year Income: \$450,000



참석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손현주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예배를 보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참석자들 모두 즐거웠다

시애틀한국문화센터, 지난 12월 25일 싱글들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개최 3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남성과 여성들 50여 명 모여 즐거운 시간 가져

추수감사절 당일인 지난 11월 27일 '혼자 먹는 칠면조는 외롭습니다. 함께 나누면 인연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0여 명의 싱글들과 추수감사절 파

티를 진행한 바 있는 페더럴웨이 시애틀한국문화센터가 이번에는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크리스마스 당일인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했다.

모임을 준비한 새소망교회 손현주 담임 목사는 파티 전 가진 성탄절 예배 순서에서 '아기 예수를 맞이한 목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 후 저녁

식사와 장기자랑, 게임을 겸한 크리스마스파티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게임과 장기자랑 순서 내내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으며, 문화원 측에서 준비

한 풍성한 선물을 받아 들고는 싱글벙글했다. 또한 문화원 측이 준비한 푸짐한 음식을 나누며 처음본 사람들이지만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밴드가 봉헌기도 시간에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준비된 음식을 배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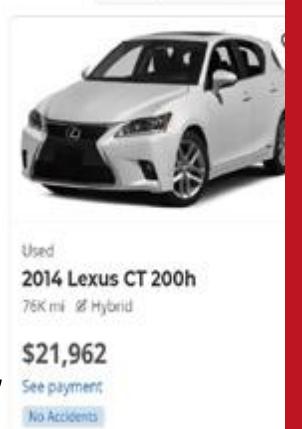
참석자들이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쁘고 아담한 차량의 주인을 찾습니다

**렉서스 2014년형 CT200h
48,479마일 \$18,000**

렉서스 2014년형 CT200h를 \$18,000에 판매합니다. 차는 11년 됐지만 48,479마일 밖에 뛰지 않아 생생한 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1번 넣은 개스로 정말 오래 타는 경제적인 차입니다. 딜러에서 사려면 사진에 있는 흰색 차량에서 보듯, 적어도 2만 달러 이상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선착순 딱 한 분만 모십니다. **425-830-5867**로 문자나 전화주세요~



아는 것은 부동산, 잘 아는 곳은 벨뷰와 그 이웃 동네입니다.

김수영 대표, 36년의 현장에서 디아스포라의 미래를 설계하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이들이라면 “아는 것은 부동산, 잘 아는 곳은 벨뷰와 그 이웃 동네입니다”라는 문구에 익숙할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광고 문구를 넘어, 30여 년간 한 지역을 지켜온 한 부동산 전문가의 이력과 신념을 함축한다.

김수영 대표는 1987년 워싱턴주에서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업계에 첫발을 디뎠다.

2년간의 인턴 과정을 거친 뒤 곧바로 Helix Real Estate를 설립하며 독자적인 부동산 회사 경영을 시작했다.

그는 워싱턴주 최초의 한인 여성 대표 브로커로서 벨뷰를 중심으로 한 이스트사이드 지역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현장형 전문가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의 실전 경험은 업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John L. Scott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스카이라인 부동산 회사의 서부 브랜치에서 활동하며 치열한 현장을 누볐고, 그 과정에서 6년 연속 Top Producer라는 성과를 기록했다. 성과와 원칙을 동시에 증명해 온 중개사라는 평가가 뒤따른 이유다.

김수영 대표의 행보는 비즈니스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1993년부터 한인 교민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워싱턴주 내 여러 협회와 단체에 지속적인 성금과 후원을 통해 동포 사회의 안정과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 공공 영역에서도 그의 책임 있는 리더십은 이어졌다.

민주평통 제13기부터 임원직을 역임한 그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민주평통 시애틀 협의회 회장으로 봉사하며 통일 공공외교와 동포 사회 화합을 이끌었다.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그의 리더십은 어려운 시기 일수록 더욱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1월, 김수영 대표는 한국을 방문해 미국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현재 그의 고정 고객의 약 50%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한국과 미국 시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드문 실전형 전문가임을 잘 보여준다. 업무의 시작은 한국 고객을 중심으로 한 E-2 소액 투자비자와 EB-5 투자이민 컨설팅이었으며,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거용 주택은 물론 비즈니스 사업체, 호텔과 상업용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한국 방문의 목표에 대해 김수영 대표는 단순한 투자 설명회를 넘어선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에서 출발해 세계 곳곳에서 문화·예술·기술 각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더 넓은 시야로, 각자의 이름으로 투자하고 자산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곧 국력의 확장이며, 보이지 않는 국토와 영토를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 대한 계획도 분명하다.

김수영 대표는 서울의 부동산 회사들과 전략적 MOU를 체결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보다 튼튼하고 신뢰받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뜻을 밝혔다.

“2026년은 은퇴를 준비하는 해가 아니라, 은퇴하지 않는 전문인으로서 36년의 부동산 경륜이 만들어 낸 가장 정확한 선택, ‘최고의 픽(The Best Pick)’을 완성해 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삶의 인프라다. 끝으로 그는 새해를 맞이하며 다음과 같은 인사를 전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께서 더욱 행복하고 풍요와 번영이 함께하는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라서 즐겁고, 함께라서 더 따뜻한 교회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열린 공간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교회 간판.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외부 전경.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내부 모습.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는 언제나 ‘편안한 교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형식과 절차를 최소화하고, 누구든지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만나 위로받고 힘을 얻는 따뜻한 쉼터가 되기를 바라며 문을 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손현주 목사님은 지역사회에서 사업가로서 성공을 이룬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노력의 결실을, 이 신앙의 공간 뉴홉교회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열린 교회를 만드는데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예배는 복잡한 순서를 줄이고, 삶 가까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말씀과 나눔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는 함께 부르는 찬송을 더욱 늘리고, 친양팀의 역할을 강화하여 예배가 더 풍성하고 감동적인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로의 이야기가 꽂피는 교회
새소망교회는 요즘 ‘이야기 나눔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편하게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옆 문화원에서 노래, 취미, 기술 등을 서로 나누며 즐거운 시간

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함께 즐기고 좋은 시간을 만드는 따뜻한 이웃들입니다. 이분들의 작은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으며, 교회와 문화원은 이런 재능 있는 분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소망교회는 예배 공간을 넘어, 들어올 때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따뜻한 만남의 장소가 되고자 합니다.

■ 중장년층 싱글모임, 따뜻한 호응 속 출발

지난주 열린 중장년층 싱글모임은 첫 모임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웃음을 나누고, 노래와 이야기 속에서 오랜만에 밝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새 사람들을 만나 즐거웠다”,

“삶에 활력이 생겼다”,

“이런 공간이 필요했다”

라는 말들이 이어지며, 모임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 청년층 싱글모임도 시작 준비 중

좋은 흐름을 이어, 곧 20~40대 청년층 싱글모임도 시작됩니다.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공동체, 앞으로 청년들이 새로운 인연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함께 모일 때 더 깊어지는 교회
새소망교회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생활 정보 나눔, 어려운 일에 대한 조언, 이민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 각자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 등 실제로 삶에 힘이 되는 모임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지역 재능자들이 다양한 모임과 나눔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함께 즐기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열린 공간에서 새 희망을 찾다

새소망교회가 바라는 공동체는 혼자 걱정 않아도 되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웃음과 위로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곳입니다.

문화원과 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재능과 마음을 나누고 있으며, 이 따뜻한 흐름은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새소망교회는 형식보다 사람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서로 돋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계속 넓혀가겠습니다.

중장년층·청년층 싱글모임과 문화원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은 앞으로 교회를 더욱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신앙과 취미를 통해 이민자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서로 위로하며 함께 성장하는 이 공동체가 더 크게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십시오.

문은 열려 있고,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교회, 열린 교회, 함께하는 교회-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주소: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예배시간: 주일 오후 2시

▲문의: (253) 508-8902



새롭게 시작되는 중장년 싱글모임 모습



페더럴웨이 펠로우십센터 평생교육원 일식 강좌 모습.



Global Real Estate Express Commercial

Investment Property Sale
and Property Management 전문회사

Commercial 상가, HOTEL, MOTEL

- ▶ Tacoma 9 Unit Asking \$3,150,000
- ▶ Federal Way 15,041 SF Office Building, 병원건물 Asking \$2,800,000

Shelton Super 8 / 39 Rooms

Gross +/- \$1,060,000/2024

Asking \$4,700,000에서 \$3,700,000 급매

After terminating the franchise contract, operating independently results in an annual net income of approximately \$250,000 to \$300,000 프랜차이스 계약해지후운영하면 net income 약25만에서 30만불 1년수입예상

TERIYAKI / SUSHI

● TERIYAKI / Asking \$570,000

+/- \$3,000/DAY Tacoma Pacific Ave, \$2,600+N.N.N.
\$921 Lease 10/10, Option Term 7days open

● Teriyaki & Sushi / Asking \$175,000

+/- \$1,700/Day Gig Harbor,
현재 \$3,091 / New Lease

세탁소 Asking \$320,000

Gross \$35,000/M. Kirkland 좋은동네

2008년 장비, 직원2명&부부,

은퇴Sale, Rent \$3,600+N.N.N.



GLOBAL R.E. EXPRESS Broker SANG KYU YI 01상규 206-612-8962

8544 S TACOMA WAY #B LAKEWOOD, WA 98499 • Real4949@gmail.com

워싱턴주 주민 "타이틀 회사입니다" 가짜 이메일에 70만 달러 송금...간발에 막아

- ▶ 클리 엘럼 주민, 가짜 타이틀 회사 이메일에 속아 거액 송금
- ▶ 전화 확인 후 사기 인지...은행 연락해 송금 중단 성공
- ▶ 당국 "전국적 발생...송금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워싱턴주 키티타스 카운티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던 주민이 가짜 이메일에 속아 70만 달러를 보낼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키티타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클리 엘럼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이 부동산 구매 대금을 보내려 사기를 당할 뻔했다.

이 주민은 자신이 거래하는 타이틀 회사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거액을 송금하라는

계좌 정보가 들어 있었다. 주민은 이메일의 지시대로 돈을 보냈다. 그런데 주민이 타이틀 회사에 전화해 확인하자, 그 이메일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메일 주소는 회사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gmail.com'으로 끝나는 개인 이메일 주소였다.

◆ 급히 은행 연락해 송금 막아 주민은 즉시 은행에 연락해 송금을 막을 수 있었다. 당국은 만약 송금이 완료됐다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되찾을 수 없었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타이틀 회사가 피싱 이메일 공격을 받아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싱 사기는 직원들을 속여 악성 링크를 클릭하게 만든

뒤 회사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해당 회사는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는 다른 고객들을 파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발생 중...송금 전 전화 확인 필수" 보안관 사무소는 "이런 사기 가 우리 카운티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사진=신문사DB] 가짜 이메일에 속아 70만 달러를 보낼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이지만, 금융 회사들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송금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회사의 공개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한다. 둘째, 이메일로만 온 송금 지

시는 의심한다. 셋째, 급하게 보내라고 재촉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거래 중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보안관 사무소 (509-962-7525)로 연락하면 된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Federal Way
병원 스페이스 렌트
253-941-6779
chachiopractic@gmail.com

Office space Rent for
L.Ac, DPT, LMT or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3Tx rooms, Reception area , restroom
Ask for Lease special !

겨울 한파, 우리 몸 혈관 시스템 위협…'심뇌혈관질환 주의보' 발령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겨울철에 발병률이 증가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 휴람 의료 네트워크 H+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규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의 건강에도 '적색 주의보'가 발령된다. 찬 기온은 단순히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심장과 뇌 혈관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의 혈관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가해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2025 절기(12월 1일~2월 28일)' 신고 자료에 따르면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이었으며, 이 중 8명이 사망했다. 특히 환자의 54.8%와 사망자의 87.5%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4%로 실내보다 약 2.9배 많았으며, 특히 새벽 6시부터 오전 1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온이 가장 낮은 아침 시간대의 추

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신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 반응을 작동시킨다. 이 과정에서 말초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수가 빨라져 심혈관계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다. 이러한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은 혈액 내 절도(끈끈함)를 증가시키고 혈소판 활성화 및 응고 경향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혈관 내에 혈전(피떡)이 생기기 좋은 상태를 만들며, 이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에 의해 갑자기 막혀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된 증상은 가슴 중앙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압박감이다. 이 통증은 왼쪽 어깨나 팔, 목 또는 턱으로 뻗칠 수 있으며 숨이 차거나 식은땀, 어지럼증, 구토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평소 없던 갑작스러운 흉통·답답함·숨가쁨이 나타

날 경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이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상동맥 협착을 가진 환자라면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히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파 속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예방 수칙은 보온을 넘어서 혈관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외출 시에는 두꺼운 옷 한 벌만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입어 체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자, 장갑, 목도리로 머리, 목, 손발 등 체온이 쉽게 빠져나가는 부위를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 또한 기온이 가장 내려간 아침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능한 자제하고, 몸을 갑자기 무리하게 쓰는 운동이나 작업은 피해야 한다. 한파는 심장과 뇌혈관 등 우리 몸 내부의 혈관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고, 고령자, 만성질환자, 심혈관계 병력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도움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규영 전문의

"겨울 한파, 우리 몸 혈관 시스템 위협… '심뇌혈관질환 주의보' 발령"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 사업부 에스더 나 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 선정□진료 예약□치료□사후 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206-779-5382(에스더 나 이사)

J-1 · H2B · EB3 취업스폰서를 모십니다

★ 한국에서 미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고, 현재 사업체 운영에 믿고 신뢰할 직원을 원하십니까? 수시로 직원 부족으로 고용주가 대신 일해야 하는 고민을 글로벌 인재 양성 리쿠르먼트 회사 Entryusa.co에서 해결해드립니다.

- ▶ **자격기준:** 현 사업체가 워싱턴주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2년 이상 세금 보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 **사업체 종류:** 호텔, 식당, 그로서리, 스모크 샵, 세탁소, 유통 회사, 전기 및 전화 회사, 델리 및 제과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미용 및 네일, 스킨케어, 회계사무직, 법률사무직, 요가, 필라테스 강사 등

연락은 먼저 이메일로 해주세요. ▲Email: mynwc23@gmail.com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을 받은 후 직접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서 상의하겠습니다

파킹장

아스팔트, Seal코팅, 콘크리트



파킹장 문제 해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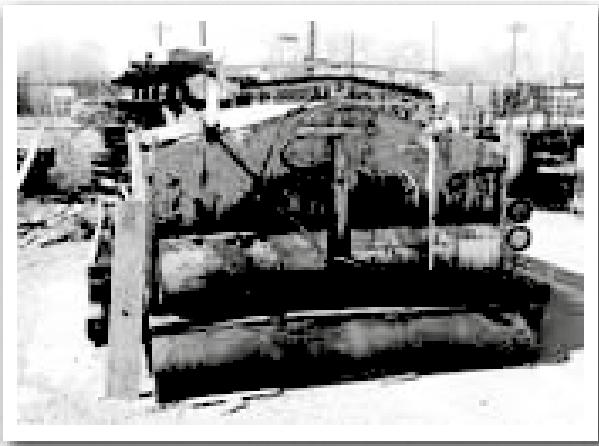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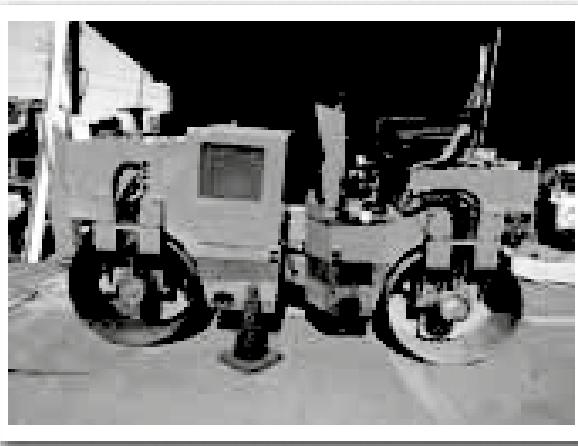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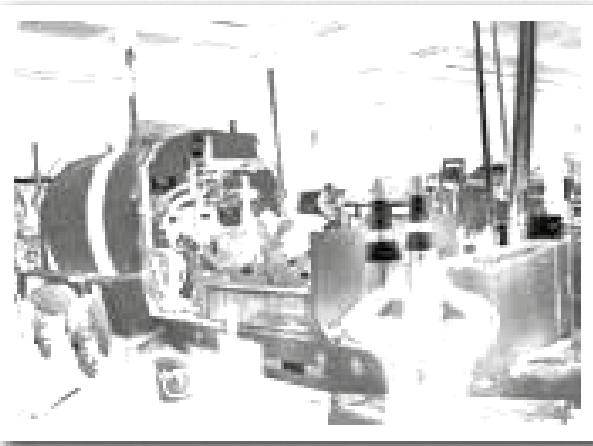
- 체인 링크 펜스

- 철제 펜스&게이트 설치 전문

최신장비 신속하고 확실한 서비스

보수공사, Line, Sign (핸디캡, 노파킹)

- 병원, 교회, 호텔, 모텔
- 게스 스테이션, 그로서리, 식당
- 쇼핑몰, 아파트, 타운하우스



Bruce & Sons Asphalt
2208 Pacific Hwy E Tacoma WA 98424

이완식 office 253.922.0200 cell 253.334.9654



저자 나은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고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로 그 사람의 자라난 환경과 인격과 학식 등 모든 것을 상상할 수가 있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소원은 자신들은 비록 육체적 노동으로 힘든 생활을 하지만 자식들만은 미국에서 크게 성공하여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밤낮을 고생하며 자식들 뒷바지하기 위해 헌신한다. 그러나 그런 부모의 잘 못된 욕망과 기대는 자식에게 암박감을 주고 불행하게 만들게 되고 자칫 부모와 반목하게 되기가 쉽다.

그리하여 우리는 꼭 이루어야 할,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 소원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는가? 이 세상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을지라도 불행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내가 불행한 사람은 또 남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행복도 불행도 전염되는 것이므로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먼저 부모가 행복을 보여 주어야 한다. 행복이란 물질과 명예, 권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것들을 따라가다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늪에 빠져서 모두가 불행과 절망 속에서 허덕인다.

그러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운전하는 것은 자기가 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소원을 그 누구나 다 이룰 수가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잘 깨닫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불행을 주는 과욕을 버리고 저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하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값 있고 보람된 길인지를 모르고 헤맬 때가 많은데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내가 온전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기쁘신 소원을 이룰 수가 있으리라.

새해의 소원

나의 소원과 기도는 먼저 대한민국과 미국과 세계 교회들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받고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해 달라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전 세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추수꾼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미국을 성경의 나라로, 천국의 분점으로 만들어 주고 세계의 약한 나라를 돋는 정의의 나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기를 기도드린다.

타락한 사람들의 민주주의는 안전하지가 않다.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더욱 악한 독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어린 학생들과 노인들까지 혼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대한민국이 속히 남북통일이 되고 우즈베키스탄, 몽골, 만주, 연해주 등 저들의 소원대로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제2의 선민의 민족이 되어 약하고 가난한 나라를 돋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 주고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한다.

아프리카와 파라과이, 러시아, 모즈독, 중국, 몽골 등 세계를 돌아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눈부시게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일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동방예의지국

인 한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어른들께 효도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약속하신 동방의 제2의 선민인 것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한 나라”가 그 어느 나라겠는가? 여러 가지 고난은 온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추수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무섭게 훈련시키시는 것이라.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 가정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① 주님의 보물, ② 제사장 나라, ③ 거룩한 백성(출 19:5-6)이 되기를 사모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인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명예, 권세, 부귀를 따르고 이 진리를 우습게 알지만 그 결과는 실패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다. 진리의 길, 좁은 길을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로 우리가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행복한 길이다. 2026년 새해부터 그 아름다운 길을, 천국 가는 행복의 길을 미국 속의 우리 한국 백성들이 다 같이 잘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기도 올린다.



레이븐 경비회사/ 레이븐 공인탐정사

**현재 호텔/모텔/상가/건물/빌딩 관리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사 · 형사소송 사건증거수집업무

배우자

종업원

개인 신원조회업무

학력

범죄

레이븐 공인탐정사에서는 24시간안에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못 찾을 시 의뢰비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레이븐경비회사로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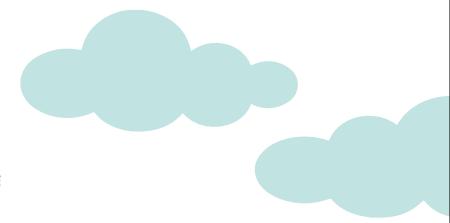
Tel: 253.353.3663 / Web : WFPDICL.com



RAVEN LEGAL TASK FORCE
RAVEN SECURITY ENFORCEMENT AGENCY #858
ARMED SECURITY PRINCIPAL #79760
RAVEN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2037
RAVEN ARMED PRIVATE INVESTIGATOR PRINCIPAL #4036



시애틀 라디오한국
KSUH 1450AM KWYZ 1230AM



워싱턴주 유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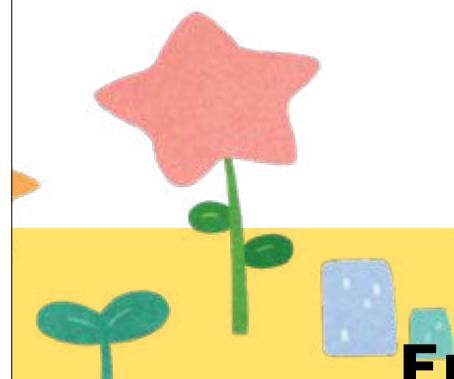
한국어 방송

라디오한국이
달라져요?

27주년을 맞은 라디오한국이

뉴스, 정보, 음악중심으로

편성표를 대폭 개편합니다!



Tel 253-815-1212

Email : info@radiohankook.com

31919 1st Ave S, suite 206 Federal Way, WA. 98003

교육칼럼



민명기

eWay 학원 원장

애독자께서 이 칼럼이 실린 신문을 가판대에서 집어 드시는 때는 2026년 병오년 새해다. 한국에서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말띠로 부르는데, '병'에 해당하는 붉은색과 '오'가 나타내는 말의 결합으로 붉은 말의 해이기 때문이다.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키해였고, 2024년은 청룡의 해인 갑진년, 며칠 전인 2025년은 푸른 뱀의 해인을 사년이었다. 각 연도의 띠와 동물의 색은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에 의해 결정된다. 잘 아시다시피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가 천간이며,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지지이다. 그런데 갑/을은 푸른색, 병/정은 붉은색, 무/기는 황금색, 경/신은 흰색, 임/계는 검은색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쥐), 축(소), 인(호랑이), 묘(토끼), 진(용), 사(뱀), 오(말), 미(양), 신(원숭이), 유(닭), 술(개), 해(돼지)와 조합하면 60개의 짜이 만들어지며, 60번째가 되면 다시 처음인 갑자가 시작된다. 그래서 2025년은 을사년이고, 26년은 그다음 조합인 병오년이 되는 것이다.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떠올리실 을사조약은 1905년에 일본이 조선을 핵병하기 위해 강제로 맺은 조약이었다. 즉 120년이 차

이이니 60개의 짜이 두 번째 만들어진 것이다. 누구든지 항상 이때가 되면 한 켜 늘어난 나이만큼 쌓인 지혜에 비례하는 뭔가 새로운 꿈을, 이상을,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간의 구분이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랴마는, 이때를 기회로 작년과는 조금은 다른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어릴 적 가졌던 꿈은 고사하고, 지난해 이맘때쯤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조차 생각날 겨를 없이 그저 하루하루 목적 없이 바쁘게 살고 있었다면, 이제 바쁜 일상의 여정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다.

소리 없이 흘로 떠나는 묵은 해와 새롭게 밝아오는 새해에 대한 감회에 잠기다 보니, 생각의 흐름은 자연스레 공자님이 논어의 「위정편」에서 논하신 나이에 걸맞은 인간의 적절한 위치에 관한 구절들로 옮아간다.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吾十有五而志于學), 30에 확고히 섰고(三十而立), 40에 미혹되지 않고(四十而不惑),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五十而知天命), 60에 귀가 순해졌고(六十而耳順), 70에 마음이 하고 싶은 바를 따르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연세는 어디에 속하시는지?

새해에 공자님 말씀의 참뜻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이가 한 살 많아진다고 저절로 마음의 눈이 좋아져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노력 없이 ‘不惑(불혹)’의 상태에 이

르지는 않을 것이다. 갑자기 일 년이 지났다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따르면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와 같은 극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으리라. 비신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다듬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어렵고 힘이 들지만 좌절하기보다는 한 순간 한 순간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젊을 적 우리가 죽을 만치 고통스럽게 느꼈던 순간의 상황들은 시간이 지나 지금은 그 잔상조차 사라져 버렸다. 아니, 어젯밤에 우리를 잠 못 들게 한 그 걱정의 크기는 아침 햇살에 녹아내린 고드름처럼 그 크기가 벌써 절반이나 줄어들어 있지 않은가? 마음을,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는 바쁜 관점을 갖는 것이 요긴하다. 새해를 맞아 많은 이들이 금년에는 꼭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만약 비전이 없다면 새해를 맞아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자신이 바라는 대학 입학을 위한 소원도 있어야 하겠으나 좀 더 근본적인 목표를 정하고 굳게 마음을 정해 실천해 보자.

적어도 올 한 해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을 받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예수님의 초기 설교에서 다음의 여덟 유형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을 요즘은 크리스천이 아니시더라도 많이 아신다. 성경의 마태복음 5장 1~12절을 읽어 보면, 예수님은 당시나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주류가 아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듯하다. 복 있는 행함과 결과로서 받는 복(괄호 안의 것)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천국을 소유), 애통하는 자(위로), 온유한 자(땅),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배부를 것), 긍휼히 여기는 자(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한 자(하나님을 볼 것), 화평하게 하는 자(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천국을 소유)이다.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위만을 쟁이며 다른 사람도 자신과 꼭 같은 존재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만연한 우리네 현실과는 다른 꽤 괜찮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

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신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등불이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 ‘짠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등잔 위에서 불을 밝혀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한다고 하신다.

적어도 올 한 해에는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정, 학교, 사회, 나라-에서 팔복을 받은 자의 맛을 내며 세상에서 옳고 밝은 빛의 역할을 하는 젊은 이들이 되기를 결심하고 실천해 보면 좋겠다 (www.ewaybellevue.com).



경쟁력있는 임금 \$21.49~\$25.39

**좋은 베니핏 - 의료보험, 유급휴가
자유로운 근무 시간 - Full Time, Part Time
근무중 자동차 운행비 지급
경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KWA 본사와 지부에서 신청서 접수와
신청서 작성률 도와드립니다.
(253)535-4202 / www.kwacares.org/careers**

**큰 뜻과 보람으로 일하기 원하십니까?
대한부인회 간병인(Caregiver) 모집!**



〈타코마〉 실비아 리 (253)319-8646 sli@kwacares.org, 김혜연 (253)319-8652 hykim@kwacares.org

〈린우드〉 리나 정 (425)790-3565, (253)302-0202 Ichong@kwacares.org

〈海边贝尔维尤〉 이경주 (253)656-3458 klee@kwacares.org, 송영정 (253)656-3445 ysong@kwacares.org

박상원목사의 동족선교칼럼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

일 년에 마지막 기념일이 성탄절임이 너무나 좋다. 시간의 끝도 우리 인생의 끝에도 오직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 이런 은혜는 우리의 의지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만이 가능케 한다. 예전에 병원에서 많은 임종 환자들을 대하면서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이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 확연히 대조되는 것을 필자는 많이 보았다.

최근 국내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성탄의 의미와 뜻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건국 아래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념 갈등과 그 갈등을 부추기는 뉴스만 도배가 되어서 씁쓸하다. 개선되고 발전해서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쏘아야 할 정치는 범 위에 올라서 오히려 퇴행의 길로 치닫고 있으니 나라가 심히 걱정스럽다. 특히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 심란하게 한다. 언제까지 우리 정치는 이렇게 정쟁만 양성하고 대립으로만 치닫게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것인가! 참으로 마음이 미어질 뿐이다.

그것은 낮고 천한 곳을 택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특별히 세상 권력에 짓눌려 사느라 오직 의지할 곳은 하늘밖에 없는 지극히 힘없는 백성들과 죄로 힘들어하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국민들의 표를 얻은 자들이 더 끔찍하고 못된 짓들이 드러나는 것에도 이제는 놀랍지 않은 상태가 된 지 오래다. 오직 정의와 배려 그리고 사랑은 예수밖에 없는는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함에 오늘의 비극이 도래하지 않았나 싶다.

이 비극의 시작은 결국 우리의 욕심과 죄에 대한 무관심과 악 때문이다.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힘든 이웃들에게, 빈자들에게, 북녘의 동족들에게 꾸준하게 나누어야 하는데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돈, 명예, 권력 등등)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배에다가, 가족들에게다. 이의 관계자들에게만 나눠 먹기 하려고 하니 사회와 국가는 병들고 흉역을 앓게 되고 이웃들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지금 까지의 역사적 교훈(결론)이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과정을 보면 참 의미가 깊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 때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셨다. 그냥 갈비라고 생각하면 LA갈비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기독교의 품격과 고상함이 있다. 히브리어로 갈빗대('늑골뼈')라는 뜻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로 당시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성경의 의미를 그때 사용했던 단어의 의미까지 깊이 해석하면 얼마나 신비하고 경이롭고 가치가 있는가! 아담의 최초의 이웃이자 배우자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뽑아서 창조했다는 말이다. 우리들의 이웃도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정성과 사랑을 뽑아서 줄 때 그 사람이 이웃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도 하루하루 날이 창조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갈빗대처럼)을 뽑아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냥 말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나라와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말만 있고 다들 자신들의 소중한 것은 뽑지 않고 누리려고만 하니 세상은 이웃도 없고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소중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고차원적이고 상상만으로 말로만 우리의 이성과 마음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하는 결손과 낮아짐이 있어야 하기에 결코 쉬운 탄생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놓는 결단이다. 이러한 도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만 자꾸 올라가려고 하기에 세상이 아우성이고 더 힘들어하고 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끝까지 보아야 한다. 그런데 주변 것들이 너무 많고 그 주변만을 보니 정작 보아야 할 분이 안 보인다. 나를, 우리를 구원코자 오신 그 성탄과 마지막의 주인공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뽑아서 내 이웃을 만들어 가자! 예수님이 탄생에는 마지막(마궁간 같은) 인생도 영원의 시작(새 생명)으로 창조하신다는 의미가 있다. 2026년 새해에는 그렇게 새 대한민국을 창조해 가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

복음/생명/자유를 공급하는 기드온동족선교는 여러분의 후원참여로 함께 이루어 갑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 홈페이지)

- 1) 최근 북한/중국 국경지대 (6월)방문과 선교상황보고
- 2) 지하성도들의 북한군인 전도한 결과 나눔
- 3) 북한이탈주민들의 북녘의 가족들 직접지원과 소식 나눔
- 4) 지하성도/영양빵보내기/한국과 미국의 탈북가족들/탈북신학생 지원
- 5) 5차 글로벌복음통일컨퍼런스_방콕2024 개최안내



(선교후원하기 큐알코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지나 채

킹카운티 멘탈 헬스 카운슬러

00는 늘 등에 메고 다니는 100파운드는 둘씩 한, 군대에서 군인들이 짊어지고 다니는 방수 가 될 듯한 검은색의 백팩을 등에 짊어지더니 곧 흄긋 스토어에서 파는 플라스틱 쇼핑백 10개 정도를 겹쳐 넣어 만든 쇼핑백 4개를 한 개씩 손에 들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쇼핑백 하나하나가 너무 무거워 보여 좀 어떻게 해 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00는 가방 한 개 들기에도 좀 벅찬 듯 힘이 들어 보이고 몇 주 전부터 무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한 일이 있어 나는 00가 좀 걱정이 되어 00 무릎 아픈 것 이곳 하버뷰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고 해도 “미쎄스 채, 아엠 오케이!”라면서 거절을 한다.

00에게 내 수술 받은 무릎을 보여 주며 너도 이렇게 무거운 것 계속 들다가는 나처럼 이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해 주니 00는 여전히 “미쎄스 채, 잇스 오케이!”란다.

언젠가는 00의 의사와 상관없이 00의 진료 약속을 해 놓았더니 정색을 한 00가 무척 화가 났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한다.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원들이 자기 몸에 이상한 장치를 해 놓아서 자기의 정보를 다 빼간다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사무실과 하버뷰 병원은 같은 빌딩 내에 있어서 우리 환자 고객들이 오면 곧장 진료를 받게 되어 있어서 편리하다.

00는 4개의 무거운 쇼핑백을 한꺼번에 들기가

불편한지 가방 한 개씩 조금씩 가야 할 길 쪽으로 가져다 놓고 다른 백을 또다시 먼저 갖다 놓은 백 옆에 갖다 놓고 또다시 다른 백을 그 자리로 가져다 놓는 그런 방법으로 가방 4개를 들고 다니고 있었다.

가방 하나의 무게가 족히 100파운드는 넘어 보인다.

언젠가 내가 무거워 보이는 쇼핑백을 들어 보고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좀 보여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그래, 그럼!”

00가 보여 준 쇼핑백에는 온갖 집안에 필요한 실림살이가 들어 있었고 그릇, 무거운 무쇠 프라이팬, 냄비, 스푼, 포크 그 외에 집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는 쇼핑백, 다른 쇼핑백에는 온갖 식품 통조림들과 마실 물병들, 백 안에 물병만 20개 정도가 들어 있고, 다른 쇼핑백 안에는 며칠 전 구매한 듯한 야채가 다 시 들어 냄새까지도 있는데 봉투에 담겨져 있고,

다른 백 안에는 사탕 봉지들과 다양한 종류의 과자 등 마치 잡화점을 열어도 될 만한 먹거리들이 잔뜩, 아니 꽉 차여 있었다.

나는 00를 쳐다보며 정말 이렇게 다 가지고 다녀야 하느냐고 물어보고, 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물건이 상해 버린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너의 허리와 무릎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쇼핑백이라 걱정이 된다고 하니, 00는 느긋한 미소를 띠으며 말을 한다.

“미쎄스 채, 아엠 오케이!”

나의 염려스런 질문에 같은 대답으로 마무리 하는 00를 설득할 길이 없어 상담을 마치고(일주일간의 삶의 행적을 묻고 안전한지 체크업 해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고 어디를 가든 내 사무실에 연락을 하라고 얘기를 해 주고 00

가 갖고 다니는 전화기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 주고) 내 사무실을 떠나려는 00를 도와주는 일 이 우리 사무실 입구의 문을 붙잡고 00가 그 무거운 쇼핑백 4개를 밖으로 내어가는 일이었다. 마침 내가 만나야 할 고객이 도착하지를 않아서 00를 도와서 문을 붙잡아 주고 우리 사무

실 건물을 나간 00를 잠시 따라가다 보니 00는 우리 사무실 뒷빌딩 쪽 전봇대가 있는 곳으로 모든 집을 옮겨 가더니 쇼핑백 네 개를 나란히 옮겨다 놓더니, 별안간 입고 있는 치마를 올리고 그 안에 입은 형형색색의 바지를 내리더니 길바닥에 주저앉아 볼일을 보기를 시작한다. 나는 처음 보는 00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라 “아니, 00, 너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나하고 45분간 있었을 때는 화장실로 가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사무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지 않은 거지?”

나의 질문에 00는 싱긋이 웃으면서 “미쎄스 채, 나는 이곳이 편해.”

00가 볼일을 보는 동안 나는 혹시라도 주위에 사람이 지나갈까 봐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살피는데, 우리 사무실을 지키는 안전요원 기드 중 친하게 지내는 프랭크가 이 광경을 보더니 천천히 내게로 다가온다.

그리고는 걱정스런 얼굴을 하는 나를 보더니 “레지나, 걱정하지 마. 00 이런 적이 한두 번 아니야!”

그러면서 나에게 설명을 해 준다.

“나도 처음에는 00에게 건물 안에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권하여 보았지만 절대로 막무가내야! 정말 미치겠다.”

볼일을 보고 난 00는 여러 개의 쇼핑백 중 한 개의 쇼핑백에서 물티슈를 몇 장 꺼내더니 쓰

윽하고 닦아 내고는 몇 장의 물티슈를 더 꺼내 더니 이제는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젖히더니 몸의 구석구석을 물티슈로 닦기 시작을 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든 없든 00는 마치 물줄기로 샤워를 하듯 온몸의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을 했다.

물티슈 한 박스 이상은 다 쓴 듯(쇼핑백 안에는 물티슈 박스가 10개는 있는 것 같다) 다 사용한 물티슈로는 방금 볼일 본 자기의 흔적 위를 살짝 덮어 놓고는, 00는 다시 쇼핑백 4개를 한 개씩 들고는 10미터쯤 갖다 놓고 다음 쇼핑백, 그리고 다음 쇼핑백을 옮기는 것이다. 저렇게 가려면 아마 집에까지 가려면 하루는 족히 걸리겠다 싶은데, 내가 사무실로 잠깐 들어갔다 다시 밖으로 나와 보니 00는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 전 00가 3주째 사무실을 찾아오지 않아서 00가 살고 있는 그룹 흄에 찾아갔었다.

그룹 흄 입구에서 나의 사무실 배지를 보여 주고 하우징 케이스 워커에게 내가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를 하니, 하우징 입구에 있던 직원은 나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곧 그 하우징(그룹 흄)에서 00를 담당하는 하우징 케이스 워커를 만나게 해 주었다.

나를 데리고 자기의 사무실로 간 하우징 케이스 워커는 지금 00가 0000병원에 입원 중이란다.

“아니, 무슨 일로?” 나의 질문에, 00가 며칠 전 시애틀 디운티운에서 100불짜리 수십 장을 가지고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00가 돈이 많은 줄 알고서 이 돈을 뺏으려는 중독자들 몇 명에게 온몸을 구타당하고 갖고 있던 돈도 다 빼앗기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다. <다음 호에 계속>

안정된 회사,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쉬어집니다.

IRA / Roth IRA / 401(K) *
뮤추얼 펀드 / Brokerage Account *
평생연금 – Annuity **
은퇴계획 – Retirement Plans
상속계획 – Estate Planning
개인&비지니스 생명보험 – Life Insurance for Personal & Business
간병보험 – Long Term Care
생명보험을 활용한 학자금 플랜 – College Funding using Life Insurance

* products offered through Registered of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and a New York Life Company.
**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The Million Dollar Round Table (MDRT), The Premier Associ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is recognized globally as the standard of excellence for life insurance sales performance in th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dustry.

2024



178년 역사의 뉴욕라이프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김수현 (BILL "SUHYUN" KIM)

Registered Representative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Agent

Mobile 253 802 2550

*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investment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증서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타코마 ICE 이민국 구치소 시설 더 열악해지나?

타코마에 소재한 서북미 이민국 구치소의 새 운영 계약과 관련해, 연방정부 공고에서 기준보다 낮은 구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 코모4뉴스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2월 19일 새 계약 전 단계인 '사전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는 시설 명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수용 인원 1,635명 등 여러 단서로

타코마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시설의 최대 수용 인원은 1,575명이다.

이 시설은 2015년부터 민간 교정업체 GEO 그룹이 운영해 왔으며, 기존 계약은 9월 말 만료됐다. 그러나 새 계약에는 현재 적용 중인 '성과 기반 국가 구금 기준' 대신, 분량과 보호 수준이 더 낮은 '국가 구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언급돼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 인권 단체들은 새 기준이 의료·환경·야외활동 등에서 보호 수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ICE는 입찰자의 과거 운영 실적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으며, 새 계약은 내년 3월 28일부터 최소 1년간 시작되고, 최장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타코마에 소재한 서북미 이민국 구치소

메디케어 보험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입
플랜에 따라 혜택도 다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장 좋은
플랜으로 선택하세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플랜변경 기간입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에이전트들에게서
무료로 자세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단계. 1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하십시오.

일반 메디케어 (연방 정부에서 제공)

파트
A

병원 입원 및 입원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파트
B

의사 방문 및 외래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선택사항 1

일반 메디케어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추가합니다.

메디케어 보조 보험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일반 메디케어에 수반되는
회원 지출액 일부에 대한
비용 지불에 도움을 줍니다.

파트
D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처방약 비용 지불에 도움

선택사항 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파트 A (병원보험) 및
파트 B (의료보험)를
하나의 플랜에서 통합합니다.

파트
C

보통 처방약 혜택이 포함됩니다.

파트
D

일반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계. 2

귀하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한지 결정하십시오.
추가 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 3
저희에게
맡겨 주시면
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무엇이든 대답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연 종합보험

Federal Way
253-228-5295
Tacoma
253-335-3895

jpininsurance.us@gmail.com
JP INSURANCE

온정숙 종합보험

Cell
253-353-9730
Office
253-503-6441

jungvaughn62@comcast.net
VAUGHN Insurance Services, LLC

패티임 보험

Cell
253-632-8904
Office
253-335-3895

girlpatti1@gmail.net

이백희

메디케어 전문보험

Cell
253-228-7006
bkins.medicare@gmail.com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

謹賀新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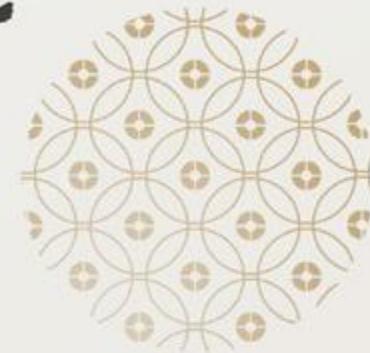
World-Okta Seattl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월드옥타 시애틀지회 회장 김필재 및 임원·이사 일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SMG는 올해도 당신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보대사 고두심